

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람회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업단지이며, 오늘날의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둘러 정복생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

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뀌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소관 부처에서 안건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계우 서울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산업단지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 함께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내년 2배 확대해 노후 산업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혁신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 있어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 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관섭 (주)영광 YKMC 사장은 화학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기준이 일부 과도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학법 내 처벌규정 등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환경 처벌규정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환경 분야에 많은데, 시대가 지나 불필요한 '늪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



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 등이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토론 말미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혁파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를 구성해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에 힘을 실겠다고 밝혔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구로공단이 혁신 클러스터로 변모했듯이 기업환경을 개선한 곳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구로산단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각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최광수/기자

김동연 지사, 경기도 농업인 만나 "농민이 대접받는 경기도 만들겠다"

24일 경기도청에서 농민 350여 명 참여한 '농담(農談) 토크콘서트' 열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들을 만나 소통하며 "농어촌이 잘 살고 농민이 대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주최 '농담(農談) 토크콘서트'에서 고통화, 인력난,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만나 경기농업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다산 정약용의 3농(農) 정책을 언급하며 "다산 선생께서는 농민들이 상인이거나 선비보다 더 편하게, 돈도 많이 벌고 대접받는 그런 농업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경기 농정과 어업에 대해 도정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민선8기 중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해 입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취임 전 전국 농촌을 다니며 농민들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면

서 "저의 경험과 여러분 얘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한 팀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잘 살게 하고 또 농민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농단협 대표 및 농업인과 관련 관계기관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농업에 대해 제안하고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성남 위원장, 방성환·장대석 부위원장, 박명원·이오수 의원 등이 참여해 농업인을 격려하며 더욱 활기를 띠었다.

1부 맞손 토크는 민승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장 진행으로 김동연 지사가 농업인의 제안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쌀 전업농과 양봉농가는 영상을 통해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 관한 대화

가 이어졌다.

농민들은 농촌 인력 문제 해결, 소멸 위기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 농촌 RE100, 농촌 마을 기회소득 확대, 농업인 재해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참여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공감을 표하며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맞손토크 종료 후에는 경기농단협 대표자들이 '경기농단협의 10가지 제안' 피켓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했다. 10개 제안에는 ▲청년농 및 미래농업 주제 육성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유기농 확대 ▲경기미 쌀값 안정화로 농민소득 증대 등이 담겼다.

2부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장 등 관련 실극장과 함께 1부 농담토크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범상/기자

영양 들머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머리다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위와 남이포, 삼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겸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발해보통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유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남영숙 농수산물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도 규정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물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

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원장 권기수)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 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물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물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
 ①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내 수산물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안전성조사부터 적용한다.

'육정미 의원',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 적극적인 지원 촉구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 촉구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서면시정 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육정미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

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부산시 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개인에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시계탑 50년 만에 복원...등록문화재 가치 높여

시의회 본관 '서울의 옛 모습 찾기' 일환 시계탑 복원, 28일(월) 제막식 개최



도시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시계탑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회 시계탑 또한 서울을 대표하는 시계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본관동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12월 '부민관'이라는 공연시설로 처음 지어졌다. 당시 보기 드물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진 건축물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의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한 근대문화재이다.

'부민관'은 1935년 12월 준공되어 다양한 공연 등이 이루어졌으며, 광복 이후 잠시 미 군정청과 그리고 국립극장으로 사용됐다.

1954년~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옮겨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사용됐으며, 이후 1976년부터 1991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기 전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활용되다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계탑이 언제, 어떤 이유로 철거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남아있는 사진 등을 통해 1975년경 철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문화유산 시민단체인 (사)한국의 재발견과 함께 '서울의 옛 모습 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막식은 28일 오전 11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다.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오세훈 서울시장,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가 설치된다.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밖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 본관은 격동의 근대 역사를 인정받은 국가등록문화재임에도 그동안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의회 내부에서 역사적 활용 가치를 찾아가는 의견이 있었고, 마침 올해 시계 설치에 대한 문화유산 시민단체의 지정기탁 제안이 있어서 속도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시계탑 복원과 연계해 기존 시의회 대형 회장과 의회 사인물을 철거해 권위적인 의회의 모습에서 탈피,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도 함께 구현하고자 했다"라며,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의 빅벤, 독일 뮌헨의 시청사 시계탑 등 세계 유명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중학교 설립 위한 학교용지 확보 요청"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은 지난 23일(수) 14시, 한국철도공사(KORAIL)을 방문해 한문희 사장과 면담을 갖고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에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김재운 시의원의 주선으로 범천동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부지 내 중학교 유치추진위원회 백옥자 공동위원장,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국민의힘, 부천2, 범천1·2), 박광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범천1·2), 김동호 의원 등이 동석하여 중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간절함을 전달하였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철도차량

정비단 개발부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지 내 핵심지역에 학교 용지 확보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야 한다"고 학교 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철도차량정비단으로 인해 지난 110여년간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소음과 분진은 물론 지역간 단절, 교통 불편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특히 범천동 지역의 학생들은 2005년 개성중학교가 이전한 이후 18년 동안 전포동에 있는 중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한문희 사장은 부산시와의 의견 조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동안

불편함을 감내해온 범천동 지역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은 1904년 건설되어 120년 가까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으나, 이전 사업이 2020년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7년까지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지난해 공개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개발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24만여 m² 부지에 상업시설, 다목적 주거, 생활간접자본시설 등 주거복합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송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 강원도·화천군 현장 방문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송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대표 의원 정미진)'가 지난 24일,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지역인 강원도(강원관광재단)와 화천군으로 현장 방문을 다녀왔다.

'청송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두 기관의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청송군에 특화된 정책을 모색하고자 현장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강원도와 화천군은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 입상한 우수 기관이다.

'청송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먼저 강원관광재단을 방문하여 국내 마케팅 팀(팀장 최동석)으로부터 위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을 청취하고, 위케이션을 활용한 관계 인구 확대 정책에 주목하고 청송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후 화천군을 방문하여 교육복지과 인구정책팀(담당 이명숙)으로부터 화천군의 다양한 인구 소멸 대응 정책 추진

성과를 경험한 뒤 은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화천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미진 대표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우수 사례를 토대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청송군에 적용 가능한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고민하여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 대구시 교육청『민어요 챌린지』참여

차대식 의장, "우리 의회도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교육 캠페인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하겠다"고 밝혀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8월 24일 대구시 교육청이 진행하는 학교 문화 개선 캠페인 '민어요 챌린지'에 참여했다.

'민어요 챌린지'는 교육 분야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학부모 인식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가 넘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획된 캠페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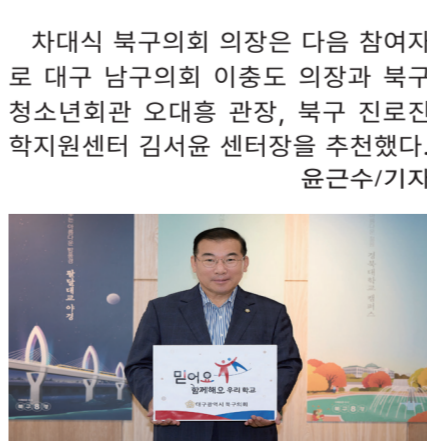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다: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자의 지명을 받아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민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팻말을 들고 사진 촬영 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서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배광식 북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차 의장은 캠페인 문구

가 든 팻말을 들고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하고 신뢰 넘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교육 캠페인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제 부:대선 (114)	요 개 시 연 부:대선 (118)
	스 포 츠 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환(趙錫換) 박사’

주실마을, 세계적 기독교와 유교문화 관광상품 마을로

‘주실마을 관광자연자원을 이용한 미래관광 상품개발’
‘지구촌 다니며 글로벌 관광개발 벤치마킹으로 새로운을 연구하는 석학자’



주실마을
경북 영양군 일월



조선환 박사는 1945년 경북 영양 일월 주곡에서 태어나 영양중, 영양고, 성결대학교 경영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취득했으며, 이명박대통령 운장, 김대중 대통령 국민포장을 획득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숙명여대 강사, 평택대 경상학부 교수와 제12대 성결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최초로 미국 UCLA Lowrance W. Erickson 교수로부터 Typewriting 기술개발과 Education Method 에 관해 사사를 받았다.

현재 그는 한국정보관리협회 회장, 국가기술표준원 국가 컴퓨터자판 전문위원회 위원장, 세종대형기사업체 한글기계화정보화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 컴퓨터 키보드 자판 공동 연구와 한겨레 통일 자판 개발 합의 ▶남북 문서 실무사 양성과정 교재 공동개발 ▶모바일폰(천지인) 한글표준자판 및 접속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학구파로 정평이 나있는 분이다.

이러한 스태크를 가진 그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풍겨나오는 ‘볼매라 불려주고 싶은 정도로 젊은사람들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79세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열정을 지닌데다 그의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를 비롯한 각종 역사적식에 대한 해박함에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특히, 남북이 분단돼, 78년의 비통한 역사 속에서도 남북간 평화의 키보드 전도사 역에 헌신을 기울여 오고 있는 그의 이런 노력은 후세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조선환 박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특집으로 집중 취재했다.

▶ 주실마을은 구한말 들어 온 개화사상의 물결을 지혜롭게 받아 순응한 선구자 마을이다.

이곳 주실마을은 ‘육지속의 섬’이라 불리 어지는 영양군 일월면에 위치한 이조시대 한양 조씨의 본산이요 대한민국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 생가가 위치해 전국의 수많은 문학 애호가들이 즐겨찾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선비들은 일찍 개화사상을 수용했고, 1905년,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여러지역과 달리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이다.

이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조 박사는 이 마을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지리산의 선비문화 연구원은 물론, 국외로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곡부시의 중동 이스라엘 에집트를 방문, 구약성서의 출애굽 탈출의 여정을 벤치마킹 했고, 스페인의 에스펠레트(Espelete)고 추축제, 미국의 미시시피(Mississippi)페스티벌 농업축제 등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를 ‘주실마을 관광상품화’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이곳 주실마을을 세계속에 우뚝 솟는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가 상존하는 관광상품지대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또 그는 (사)한국정보관리협회 회장으로서 경북 출신 남북학자들이 함께 만든 평화의 키보드를 위해 지난 6.15평화공동선언으로 평화무드가 한창이던 시기에 남북은 갈려 왔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 자모음 맞춤법과 순서와 컴퓨터 글자판 키판 자모음 순서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북한을 방문해 그곳 학자들과 한겨레통일표준자판을 갖는 단발기 발명과 남북이 규정을 통일

한 민간자격 통일컴퓨터드라이브 자격을 함께 시행하고자 제안, 합의를 도출시키는 등 그의 남다른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 ‘조선환 박사, 영양주실마을을 세계적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 관광상품 마을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헌신적 노력이다.’

잘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유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본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해온 실학마을로 불리어져 온, 이곳 영양군 일월면의 주실마을이 있다.

안동의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중심이 돼, 600여년간 명맥을 이어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국내관광지로 각광을 받아 오고 있는 마을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특히 이곳의 선유불출놀이 불꽃놀이 축제는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하회마을에서 행해지는 양반놀이 중 하나인 전통불꽃놀이로서 전국 유일의 안동 하회마을 특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이곳 영양의 주실마을은 전통마을로써 400여년 전, 한양 조씨의 집성촌으로 조선 중기조광조의 후손인 조전 선생이 사학을 펴며 정착하면서 주실마을로 불려지는 역사적인 곳으로 실학자들의 교류와 개화, 개혁으로 이어진 진취적인 문화를 간직한 매우 유서 깊은 마을이지만 뚜렷한 관광상품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주실마을을 조선환 박사는 반드시 세계적 기독교와 유교문화의 온산지인 새로운 관광상품지대로 주실마을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 2000년 당시, 정부가 이곳 마을 전체를 전통마을로 단장해 유교문화 관광마을로 바꿔 놓았지만, 애석하게도 외형만 바꿔 놓았을 뿐 장 필요한 이곳의 부가가치를 높이지는 데는 소홀히 해와, 안동 하회전통마을의 고부가가치와는 달리 이곳 전통 주실마을은 지금 현재까지도 마땅한 관광상품 하나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움이 짝이 없다.

이에 그는 지난 1999년 5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석학들을 영양으로 초빙, 영양군을 소개하며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적 가치와 관광상품의 호감도를 확인, 그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그의 주실마을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은 실로 눈물겹다.

▲ 조선환 박사의 열정의 열매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그의 노력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빛을 발해, 조선환 박사가 꿈꿔 온,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 공존 관광상품화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도창 영양군수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그의 꿈이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다.

특히, 오 군수는 “조 박사님이 이곳 영양 출신이란 것이 무한 자랑스럽다”면서, 지난 2022년, 조 박사의 영양취임고택을 영양군이 용역보고서 문화재 지정 노력을 담은 174쪽의 ‘영양취임고택채자(사진 자료 1391장, 그림 /도면84개를 포함한 책자),를 발간하는 등 영양군의 취임고택 경상북도 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도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곳 주실마을을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 관광상품지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조 박사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사색의 각오로 뛰어왔다.



이런 그의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직 이 일에 대한 일부 중앙정부 관리자들의 무관심과 내 것이 아니라는 안일한 경직된 사고로 인해 큰 장애에 부딪혀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나, 그는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 꼭 이곳 주실마을을 기독교문화권과 유교문화권이 공존하는 관광상품지로 만들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必死則生, 必生則死”란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다”란 각오로 열정을 다해오고 있다.

▲ 주실마을과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환박사의 취임고택을 조영하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 조성된 주실마을은 하늘에서 본 마을의 모양이 배모양을 띠고 있어주실(主室) 또는 주곡(主谷)으로 불리 어진 마을로 이곳에는 2개의 총액이 있다.

하나는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 생가가 있는 조선 인조 때 조전의 2남인 조정형이 지은 경북 기념물 제27호인 호은종택(窩隱宗宅)이고, 다른 하나는 경북 민속자료 제24호로 지정된 조선 숙종 때 홍문관 교리승정원 우부승지를 지낸 조덕린의 집인 옥천종택(玉川宗宅)이다. 이외, 이곳에는 보물급 문화재인 월곡서당(경북유형문화재 72호), 만곡정사(경북무형문화재 제341호) 등이 있다.

이런 주실마을에 조 박사는 조선 영조때인 1745년 신축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6년 조박 사가 아들 매김, ‘호봉공의 7대손으로 취임유고(翠巖遺稿)를 남길 만큼 당대의 대학자로 알려진

조부인 취암공(1647~1893)의 호를 따, 조부의 학자적 명성에 걸맞는 취암고택으로 이름지었다.

이후 조 박사는 이 취암고택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경상북도 등, 각층을 분주하게 다니면서 노력을 기울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도창 영양군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마침내 문화재 지정 절차가 완료돼, 이제 9월중 문화재지정 인준서를 받게 되는 위치에 와있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다만, 문화재지정특에서 요구사항이 취암고택은 현재 주실마을 고택과 조합이 되지 않기에 그 지정된 고택명을 취암고택에서 등기된 조선환 박사의 자제분인 ‘조명길 기옥’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명명하기로 하고 이제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다.

▲ 한길 중심으로 걸은, 조 박사의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오다



유럽 석학자들 취암고택 방문 환영



외국 석학들 영양방문

영양 취암고택(英陽 翠巖古宅)
경상북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2022

영양군

취암고택 문화재지정 자료집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 꿈을 쫓아가라”

삼일고등학교 초청으로 학생들에게 특별강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 꿈을 쫓아가세요. 여러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겠습니다.”

삼일고등학교의 초청으로 25일 삼일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어 “꿈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결핍이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고등학교 때 대학교수가 되겠다고 막연하게 꿈을 꿔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꿈을 실현했다”며 “또 수원 시장이 돼 나의 지식과 역량을 수원을 위해 쓰고 싶다는 꿈을 꿔고,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역경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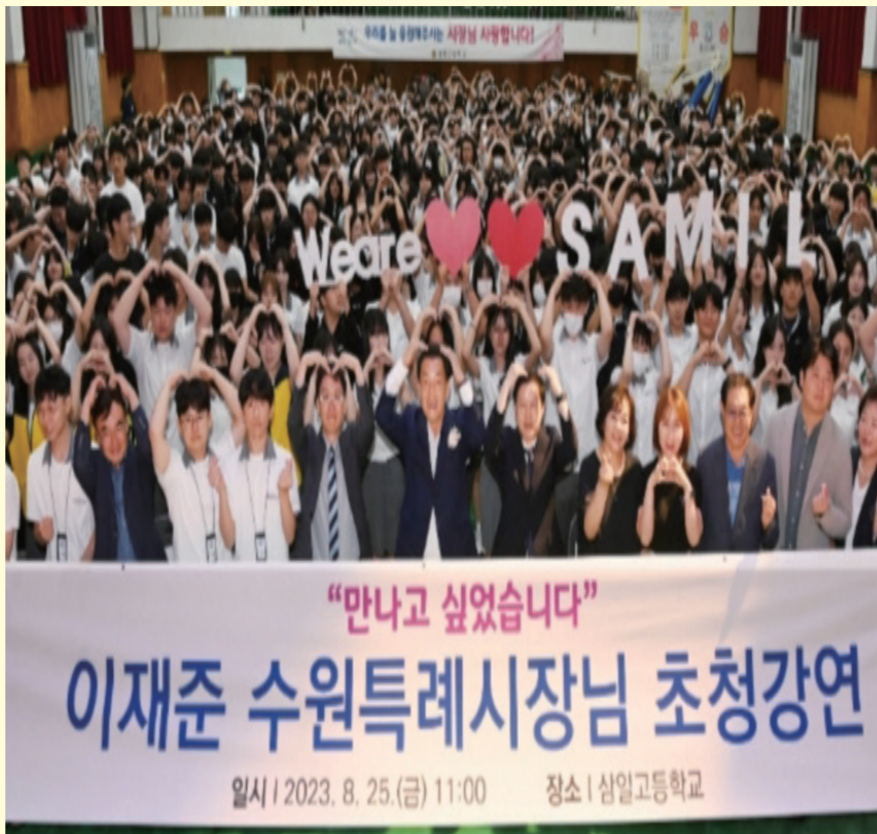
바란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

또 “수원시는 청년창업지원, 직업계고 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8월 29일 삼일고등학교에서 초청강연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직업계고 진로캠프,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천면접클리닉, 일자리 카운슬러 배치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직업계고에 1명씩 배치된 일자리카운슬러(상담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모의면접 등을 제공한다. 수원시에는 8개 직업계고등학교 있고, 재학생은 총 6198명이다.

김범상/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 초청강연

안양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

최대호 시장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업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강조

안양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전담부서(TF)를 구성하고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 방류됨에 따라, 시는 25일 오전 10시 시청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특히 수산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업종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유통수산물 안전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성 검사 확대 ▲수산물 원

산지 표시 감시 강화(9월 캠페인, 10월 특별점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체계 정비(수산물 입고 시 방사능 검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안전성 검사를 600여건 실시하고 결과를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후 각 부서에서 실시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도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자 복지문화국장 및 위생정책과, 기업경제과, 교육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장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등 총 10명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전담부서(TF)를 구성했다.

지난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오후 1시경부터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 방출을 시작했다.

신우용/기자



안양시 긴급대책회의 개최 모습

용인평온의숲, 숨쉬기좋은공간 실내공기질 인증 획득



용인도시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용인평온의숲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숨쉬기좋은공간 실내공기질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아이숨지수 모델을 활용해 실내공기질과 실내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따라 2년 마다 심사를 실시해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용인평온의숲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위해 공기정정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난방 기

기 점검과 공기 청정 필터를 교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측정 평가 지수인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총 10가지 측정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아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김진태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부장은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시설로 실내 환경과 공기질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유가족 분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수내교 인접 구간 임시차로 개설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나서

상습 정체 구간인 서현교사거리에 이른 시일내 임시 통행로 개설

성남시는 25일 상습 정체 구간인 서현교사거리(서현역 방향)에 공공공지를 활용해 우회전 전용 임시 통행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수내교의 전면 사용제한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시는 즉시 예비비를 투입, 최대한 이른 시일내 임시차로를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서현교사거리(서현역 방향) 임시차

로가 확충되면 분당내곡간도시고속도로에서 분당으로 진입하는 차량소통이 한층 원활해짐으로써 수내교 인근의 교통흐름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퇴근 피크시간대에 수내사거리, 잠월드사거리, 서현사거리 등 6개 교차로에는 모범운전자(12명)를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한편 시는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

을 받은 수내교에 대해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8월 내 개최해 보강 또는 철거 후 재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8일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안전성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 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수내교의 교각 관통 균열과 강도 저하 등 하부구조에 대해 추가 검토

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내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보강 공사의 경우 교각 증설 등 사업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철거 후 재설치를 하게 되면 최장 2년 10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으로 보고 있다.

김범상/기자

시흥시, '주거 취약계층 대상 긴급 임시주택' 민간 후원 받아

시흥시는 지난 24일 민간 후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대상 긴급 임시주택'을 받았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황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컨테이너 등 비주택 가구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아동가구가 보증금 자부담 50만원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를 선정해 이주 지원을 위한 이사비, 생필품비, 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등 이주 지원 상품을 제공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이주 전 긴급사유가 발생하면 임시거처도 지원한다. 이번 민간 후원으로 받은 주택은 긴급 임시거처로 활용된다.

24일 시흥시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긴급 임시주택 무상 임대 후원자인 황순애 씨와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 전숙향 시흥시1%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민간 후원자인 황순애 씨는 대야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1

호를 에어컨 설치, 장판 교체 등 주택 정비까지 완료한 후 시에 18개월간 무상으로 임대 후원했다. 황순애 씨의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황 지원사업’ 대상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전 임시거처로 사용할 예정이다.

후원자 황순애 씨는 “시흥시는 자녀 출생 후 약 15년간 살았던 곳이라 좋은 추억이 많다. 보유 중인 주택을 시흥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후원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에 감사드린다. 해당 주택이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황 지원사업’ 활성화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우용/기자



시흥시 긴급 임시주택 기탁식 모습

고양시, 8월 25일 서해선 일산역 연장 개통식 개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서해선, 수도권 서부 하나로 연결...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열겠다”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해선의 일산역 연장 운행이 8월 26

일 개통한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 구간 정식 운행

을 앞두고 고양시는 8월 25일 일산역 복합 커뮤니티센터 부지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서해선 일산역 연장 구간은 곡산-백마-풍산-일산역 총 4개 역으로 경의중앙선을 공용한다. 서해선은 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노선으로 이번 노선 연장으로 기존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일산역까지 연장됐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 사업은 대곡역에서부터 일산역까지 경의중앙선에 서해선 열차를 연장 운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의중앙선 구간의 신호기 설치, 일산역 반복선 운영을 위한 신호 개량, 일산역 시종점에 따른 승무원 숙소 설치 등이 실시됐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으로 일산~김포 공항 이동시간은 기존 50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되고, 일산~소사 구간은 기존 77분에서 29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포공항에서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환승이 가능

해진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통식에서 “일산역에서 개통하는 서해선은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한강을 통과해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라며 “서해선 연장은 일산 지역 철도 교통망 확대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서남부 지역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간이 드디어 개통됐지만, 기존 경의중앙선 선로를 함께 쓰다 보니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더 촘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열차를 증차할 수 있는 방안인 전용 노선 신설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가철도공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경의중앙선 증차 등 주요 철도교통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실현을 목표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제도 전면검토 필요

도내 마을공동체 단계별 지원사업 대한 전면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8월 24일 2023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포시 공동체 대표들로부터 경기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배려와 신뢰 그리고 공동체성이 되살아나는 결과가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담회를 갖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으며, 정담회에 참여한 공동체 대표들은 공동체 활동에 참가 계기와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지역사회의 변화의 효과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또한 정담회에 참가한 공동체 대표들은 공동체 지원사업이 성장단계들 좀 더 세분화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것과 공동체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의 연계와 조성, 공동체 활동가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기준과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현실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김포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을 종료한 상황에서 공동체활동의 지역내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김포시 공동체관련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원길 의원은 공동체대표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공동체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와 의견을 통하여 제도개선과 다양한 사업아이템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경기도의 공동체지원사업은 2015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위해 시작한 사업으로서 경기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온 사업으로서 경기도내 대표적인 도민참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이 좀더 현실성 있게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온 공동체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만 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대표 특산물 박람회에서 고양시 특화농산물 만나다

제2회 '경기푸드박람회'에 가와지쌀, 행주한우, 비모란 선인장 선보여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3 제2회 경기푸드박람회'에 고양시가 참가한다. 올해 경기푸드박람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홍보관과 150여 개의 부스가 경기도의 대표 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박람회에서 특화농산물인 '가와지쌀'과 '일산열무', 명품 축산물인 '행주한우', 대표 작물인 '비모란 선인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양시 특화농산물 1인 '가와지쌀'은 찰쌀과 맵쌀의 중간 찰기로, 촉촉하며

쫄깃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 품질이 좋아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쌀을 불리지 않고 지어도 밥맛이 좋고 식어도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해 캠핑용 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일산 지역의 기르진 한강 충적토에서 자라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한 아삭한 줄기가 특징인 '일산열무', 한우 최고등급 출현율 전국 1위로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친환경 청정한우 '행주한우' 등 고양시의 다양한 특산물이 시민을 기다린다.

한영기/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용인·과천·시흥·수원·안산 찾은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 드라이브 3차 투어 일정 소화

국민의힘 대표단, 정책 드라이브 3차 일정으로 경기남부·서부권 훑으며 정책 수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5일 현장 정책 투어 '정책 드라이브' 3차 일정으로 용인·과천·시흥·수원·안산시를 찾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는 '정책 드라이브' 3일 차를 맞아 도내 남부·서부권을 아우르는 정책 의견 수렴 일정을 소화했다.

정책 투어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지역별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용인7)·윤재영(용인10)·김현석(과천)·김호겸(수원5)·문병근(수원11)·이재영(비례)·서정현(안산8) 의원 등 해당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용인시는 시·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보조사

업 기준 보조를 상향 조정(도비보조를 10%→50%)을, 과천시는 다자녀 양육 수당 정책 경기도 확대 등을 각각 요청했다.

수원시는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시흥시는 시흥·화성·안산의 시화호 준공 30주년 공동기념사업 추진 지원을,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원 등을 도의회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시·군, 시·군과 도의회 간 든든한 정책 가고 역할에 나서겠다"며 "시·군의 정책 의견들이 도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도의회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정책 드라이브' 4차 투어 일정으로 오산·이천·여주·광주시(남한산성 수해복구 현장 포함)를 방문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안접수 마쳐

교사노조, 전교조 등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나온 조례 개정안

8월 25일 제371회 임시회 의안 접수 마지막 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경기도 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의안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 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시하는 등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조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전교조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디스쿨' 등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호준 의원은 3월 15일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교 내 평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 임대회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들의 수사기관 동행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등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려는 임대회 교육감의 '물타기'에 대해 "책임은 지역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교사들의 처우 및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이 져야 한다."라며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교육감·교육부장관은 나 몰라라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누가 교사를 꿈꾸며, 누가 맘 편히 아이들을 맡기겠나?"라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매주 교사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 즉시 학교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9월에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당장 변화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묻지마 범죄 관련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경기도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범죄의 특징을 정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현병을 주요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안 선임위원은 현재 출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가 부재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보방안으로 '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마련',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동 훈련', '정신질환범죄자에 특화된 사회내 보안 처분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스마타'라는 U자형 안전막대를 활용하여 흥기 난동자를 제압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도입을 촉구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석방 전·후 사회 내 치료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

신질환 범죄자 시설 관련 독일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은 법률 개정을 통한 양형 강화,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지자체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온라인 상 자가격리 시설이 유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역 사회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과 경기도의 정신질환 관리 대응방안을 밝혔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자치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안했으며,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 지자체 차원의 치료지원 제도, 적극 치안 행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대응으로 불참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한 전용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소방·경찰 합동 대응훈련과 보호장구 보강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법령으로 인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테러방지법'을 사례를 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속사를 전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를 표했으며,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 확대와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 박명숙·이서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 노력을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묻지마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도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경북 북부권 최초,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

영주시 적서동 일원 2,964억 원 투자, 119만㎡ 산업단지 조성 R&D 중심 첨단베어링 산업 육성, 인구 유입 10,300명 기대 성공 추진 비전 선포식, 시·도민 역량 집중... 적극 지원키로

이철우 도지사, "2027년까지 사업 완료, 기업이 필요한 용지 적기 공급, 투자한 기업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혀

경북도는 2018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선정된 전국 7개의 후보지 중 가장 먼저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된 것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업단지인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2,964억 원을 투입해 119만㎡(약36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연관기업의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베어링산업은 2025년 전 세계 시장

규모 약 177조 원, 연평균 5.7% 성장하는 차세대 신산업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된 영주는 국내 베어링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된다.

도는 이번에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과 지난 3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이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유발 효과 6조 5천억 원, 직·간접 고용 4,700여 명을 포함해 약 10,3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을 불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성

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앞으로 조성 속도를 앞당겨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기업이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경북에 투자한 기업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주시청 강당에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 승인에 따른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으며, 이날,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승인을 축하하며 시민행복도시를 향한 영주시의 힘찬 발걸음에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달회 부지사는 이날 간담회 전 영주 수출품목 1위인 알루미늄 가공품을 취급하고 있는 노벨리스코리아를 방문 직원들 격려후 알루미늄 재활용 관련 정 부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립무용단 제83회 정기공연 <오픈 리허설> 개최

최문석 감독 취임공연 '대구보디(DaeguBody)' 쇼케이스 오는 30일(수) 오후 3시, 대구시립무용단 연습실 마감 시까지 선착순 접수

대구시립무용단(안무 및 예술감독 최문석)은 오는 8월 30일(수) 오후 3시, 무용단 연습실에서 제83회 정기공연이자 최문석 예술감독의 취임 첫 작품인 '대구보디(DaeguBody)'의 오픈 리허설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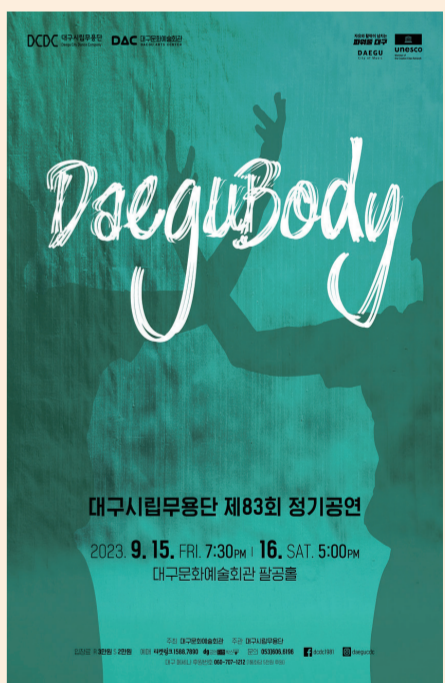
'대구보디(DaeguBody)' 쇼케이스를 선보일 이번 오픈 리허설에서는 최문석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현대무용 이야기와 안무가가 직접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또한 오픈하우스 참여자들에게는 공연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 선착순 5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마감 시까지 온라인과 전화로 가능하다. (문의 및 신청 : 053-606-6196)

대구시립무용단의 제83회 정기공연 '대구보디(DaeguBody)'는 올해 4월 대구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로 취임한 최문석 감독이 대구 시민들을 만나는 첫 작품이다. 함께 앞으로 대구시립무용단에서 선보이게 될 '대구 춤 시리즈'의 시작으로 대구만이 가지는 개성과 특성을 체화한 작품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의 공존과 순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들의 조화를 통해 사람(Body)과 도시(Daegu)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대구보디(DaeguBody)'는 오는 9월 15일 ~ 16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만날 수 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현안 간담회」 개최

지난 25일,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방안 논의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30개 안건 집중 논의해

박형준 시장,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 내년도 사상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 지원 당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과 소통하고 합심해 나갈 것"

부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시청 현안 해결방안 논의 등을 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행정·경제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봉민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등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제. 개정 필요한 주요 현안 법령 및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 등을 깊이 논의하고 공감대를 높여 나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산시 주요현안 사업 5건, 주요 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7건,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사업 18건 등 30건이다.

먼저 주요현안 사업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질병예방 공공병원화 추진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부산시 주요 발전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높였다.



주요현안 법령 제·개정으로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 ▲낙동강수계법 개정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시의 주요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항령3터널 도로개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 구축 등 주요 18개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엔진으로 거듭나고,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급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부산시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연말까지 내년도 부산시의 농사를 가름 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산 국회의원과 자주 소통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희태/기자

울진군, 8월 3차 민선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회의 개최

손병복 군수, "주요 정책 관리시스템 구축은 이중작업 없는 효율성 제고방법 모색, 해안도로는 제류형 공간조성 방안, 꽃길 조성은 관광 지도 표시할 수 있는 수준, 역사 인물 발굴 영역은 객관적 명확한 선정 기준에 중점두고 용역수행할 것" 당부

울진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국장, 정책홍보관, 실장, 관련 부서 과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하여 8월 3차 민선 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 주요 정책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 울진군 해안도로 연결 및 관광 자원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 남대천, 왕피천 꽃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 울진의 역사 인물 발굴 및 공간조성 방안 용역에 대하여 추진 상황 및 문제점 검토와 효

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주요 정책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작업 없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해안도로의 경우 대표도로를 선정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특징 있는 공간조성 방안 그리고 꽃길 조성은 자신 있게 관광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역사 인물 발굴 영역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용역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청송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김밥 등 배달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나서

윤경희 청송군수, "최근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최선을 다할 것"고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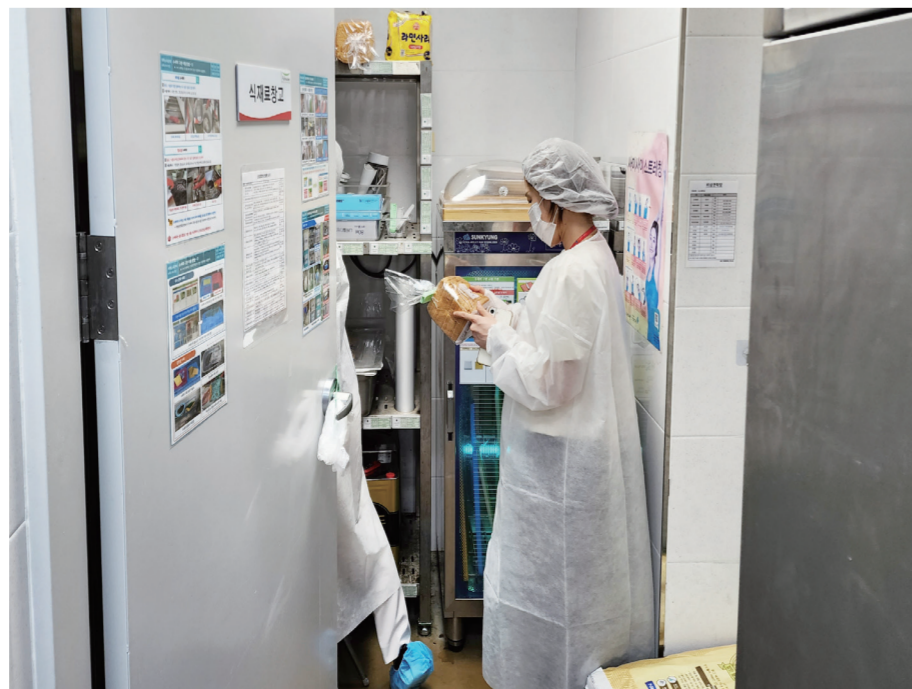
청송군은 오는 31일까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개반 9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 위생점검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조리장,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여부 ▲취, 해충 등 이물 혼합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석보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농촌일손돕기 나서

이원기 석보면장, "앞으로도 사고나 질병 등 일손 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해



석보면은 지난 25일(금), 병환으로 고추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고자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석보면,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농촌경제과, 지역개발과 5개 부서의 직원 30여 명은 석보면 주남리에 위치한 고추밭에서 고추 수확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주 김○○(57세)는 "병환으로 일손이 부족해 고추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고 밭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석보면을 비롯하여 영양군 공직자들이 일손을 보태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원기 석보면장은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려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6·25전쟁시 전사한 호국 영웅, 고 황병준 하사,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10년, '17년 두 차례 경북 영덕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친조카 유전자 채취로 신원 확인 약혼녀 남겨두고 국군 제3사단 소속으로 참전... 1950년 8월 「영덕 전투에서 전사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0년, 2017년 경상북도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3사단 소속 고(故) 황병준 하사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이동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유단체 이동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를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확인한 후의 성군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고인의 조카로 추정되는 황태기 님(72세)을 2022년 10월에 방문하여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에 따라 채취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정밀 분석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5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인의 유해는 고인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기 있게 추적해 온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 지난 2010년 3월 경 국유단체와 해병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가로로 줄지어 늘어선 뒤 경사면을 따라 발굴을 하던 중 머리뼈, 위팔뼈 등을 수습했으며, 이후 2017년 3월, 1차 발굴지점 기준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아래턱뼈를 수습했다.

고(故) 황병준 하사는 국군 제3사단 소속으로, 「경북 영덕 전투」(1950. 7. 19. ~ 8. 17.)에 참전 중 전사하였다. 고인은 1929년 9월,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에서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고인은 큰형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되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집안을 챙기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또한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입대 직전에 약혼을 한 후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잘살자'라고 약속하며 눈물로 이별을 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1950년 5월, 부산에 있는 제3사단 23연대에 입대해, 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울진으로 이동 하여 1950년 7월경 「울진-영해 전투」에 참전, 북한군 남하를 저지한 이후 1950년 7월 19일 ~ 8월 17일까지 「영덕 전투」에 참전 중 안타깝게도 1950년 8월 14일, 20세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했다.

「영덕 전투」는 동해안의 영덕 일대에서 국군 제3사단이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5사단을 저지하고 반격작전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이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어제(8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으로 당시 산야에 묻혀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조카 황태기 님(72세)은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늦었지만 삼촌의 유해를 찾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삼촌과 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찾아서 예우해 주는 국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유해를 찾아 가족으로 품으로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유단체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유(YOU)가족일 수 있다.

한울본부, 유관기관 합동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 시행

이세용 본부장,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드론비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다.

최근 한울본부 주변 해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을 나곡해수욕장, 석호항, 후정해수욕장 등 31개소에 설치, 비행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죽변정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여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원전 주변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세용 본부장은 "현재 한울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경북 북부권 첫 국가산업단지 탄생

시민추진위·영주시·국회의원 '한마음'으로 난관 뚫어
최근 5년 신청된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빨리 승인받아
'첨단소재·부품 산업' 베어링 특화도시 비전 선포
박남서 시장, "첨단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들을 유치해 영주지역은 물론
경북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영주시가 첨단산업도시의 날개를 달았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최근 5년간 신청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빨리 승인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영주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후 약 5년간의 기다림 여정 끝에 맺게 된 결실이다.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우수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영주시는 미래 전략사업인 소재부품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영주시를 중심으로 베어링 국산화 등 첨단산업 육성 동력이 마련돼 직·간접 고용 4천7백여 명 등 1만 3백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영주시 관내에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승인 고시에 따르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118만㎡(36만평) 규모로 최종 결정됐으며, 산업시설용지 60.3%(71만㎡), 지원시설용지 4.2%(5만㎡), 공공시설용지 34.3%(40만㎡) 등으로 구성된다. 유치업체는 베어링(전·후방 포함), 기계, 경량 소재 등 16개 업체이다.

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승인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보상을 위한 절차 이행을 시작해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영주 첨단베어링 산업과 베어



링 전후방 기업 및 경량소재 관련 기업 집적화의 토대를 확고히 마련하고,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기업 재정지원, 산업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영주시와 첨단베어링클러스터 조기 조성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시청 강당에서 '국가산단 지정·승인에 따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북 북부권 최초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축하하고, 산

업단지 조성부터 성공적인 기업 유치까지 베어링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김진영 시민추진위원장, 박남서 영주시장과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박성만, 임병하 도의원, 조관섭 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첨단소재 부품산업 중심도시로 발전 결의를 다졌다.

김진영 영주시민추진위원장은 "꿈이 없는 노력 끝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

산업단지가 현실화됐다"며 "지정 승인을 위해 불철주야로 업무추진에 힘써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남서 시장은 "10만 영주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들을 유치해 영주지역은 물론 경북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2025 APEC 경주 유치 지지 서명 동참

9월부터 APEC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예고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 APEC정상회의 개최시, 그 혜택은
경북도 전체로 확산돼,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로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부탁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장·군수들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25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5차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 전국적인 도시 경주가 2025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지임에 서명했다.

특히 경주 유치를 통해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국제재민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드높은 품격을 보여줄 수 있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에 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1년 7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공식 선언 후 현재까지 활발한 공동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고, 오늘 9월부터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 경주유치 희망포럼, SNS, 서포터즈 운영 등 본격적 대내외 유치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유치 총력전을 펼치는 경주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검증된 국제 회의도시로서, 특히 정상 경호와 안전에 최적화된 부문관광단지 내 밀집된 회의·숙박 인프라를 비롯해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 손색없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다만, 유치 의사를 피력한 도시 가운데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만큼 경쟁하는 다른 광역 지자체와의 동등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비전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면 그 혜택이 경북도 전체로 확산되어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로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APEC은 통상 11월경 21개국 정상과 대표단, 언론인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 정상회의의 주간을 갖고 있으며, 개최국에서는 정상회의의 주간이 외에도 고위관리 및 각료회의, 기업회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중 30여 차례의 회의가 분산 개최된다.

윤태용/기자



경북 수출기업 애로 해결... 현장에서 답을 찾다

동래문화회관, “탱고 에블루션” 공연 개최

경북도, 영주 소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애로 사항 해결과 기업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25일 수출 유관기관, 영주 소재 수출기업 17개

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주는 구미와 포항에 이어 경북도의 3대 수출지역으로 올 상반기 경북도 총 수출 236억 달러 중 9억 3천만 달러를

수출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주에서 홍삼 제품을 생산하는 권현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중소기업은 대외환경 변화, 환율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장기계약 등으로 안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 훨씬 불안한 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세심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화두를 꺼냈다.

이달히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수출 현장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고, 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경북도와 수출 유관기관은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숭아, 사과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우림영농조합법인 박경수 대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보 부족, 대체 시장 발굴, 다양한 수출비용 부담 증가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 실무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판촉전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업 판로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증식과 함께 한국 식품과 소비재, 화장품 등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주와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판촉전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 연간 10회 정도의 해외 상품전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해외인중 취득비용, 수출보험료 지원 등과 더불어 올해는 지방 최초로 경상북도 케이(K)-스튜디오(Dexter)를 구미상공회의소 내 신규로 설치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경북우수상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기계부품, 화학금속,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품목별로 구분해 외국어 책자도 제작하고 있다.

이달히 경제부지사는 “수출은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도 수출기업들과 상시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시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치맥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도시철도 두류역 이벤트

치맥 페스티벌 기간 중(8.30~9.3) 두류역에서 QR코드 응모 및 룰렛 이벤트 진행

김기혁 교통공사 사장, “기간 중, 안전하게 도시철도 이용토록 두류역에 안전 인력 추가 배치, 승객 폭주 대비 임시열차 대기 등 대중교통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수송 회복의 일환으로 ‘치맥페스티벌’ 기간 중 2호선 두류역에서 도시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2종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대구교통공사가 치킨 쏜다’ QR코드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는 두류역에 부착된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무작위 추첨 후 50명에게 치킨 기프트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8월 30일(수)과 9월 1일(금) 17시, 즉석 ‘룰렛 이벤트’를 개최한다. 참여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카드값+충전금) 100매, 야광 팔찌 400개, 부채 200개, 물티슈 200개 등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역사에 부착된 이벤트 안내 포스터를 참조하면 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치맥 페스티벌 기간 중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두류역에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승객 폭주에 대비해 임시열차를 대기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치맥페스티벌 참가 시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 대구교통공사가 치킨 쏜다

참여방법!

- 기간 : 2023. 8. 30.(수) ~ 9. 3.(일), 축제 진행 5일간
- 방법 : 두류역 곳곳에 부착된 포스터 QR코드로 응모
- 상품 : 치킨 기프트권 50명 추첨

*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World EXPO 2020 BUSAN, KOREA

탱고 에블루션

TANGO EVOLUTION

2023. 9. 3. Sun 5:00PM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동래문화회관 주관 | 친친탱고 공연문의 | 051)550-6611

예매처 | 동래문화회관 인터넷 예매 전용 공연당일 현장발권 가능

전석 20,000원 (동래문화회관 회원, 초중고학생, 장애인 1인, 국가유공자 및 동반 1인, 65세이상 경로유대자, 의사상자 50%할인, 초등학생이상 관람가)

영덕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완료보고회 개최

영덕형 사회적경제 육성모델 5개 분야 19개 사업 검토

김광열 군수,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업·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다할 것” 밝혀



영덕군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2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024~2028)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경북 경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역과소셜비즈’가 맡아 지난 5월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기업, 전문가 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

해 5개 분야 19개 사업의 영덕형 사회적경제 육성모델이 제안됐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영덕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했다.

또, 영덕군 사회적경제 비전2028 ‘해돋이 동해바다와 함께 눈부신 영덕군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 집중 발굴, 영덕형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조성, 군 사회적경제 ‘한 발 더, 주민 속으로’ 추진전략을 선정해 세부 추진과제 11개를 선정했다.

김광열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충실히 실현함으로써 주민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당면 과제와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경제 발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적 불균형 문제 등 해결하고자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련 법이 제정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 중이다.

영덕군은 2017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 6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3개소, 사회적협동조합 6개소, 협동조합 18개소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농산물 국제분석능력평가 2년 연속 우수

김주수 의성군수, “잔류농약 분석의 철저한 정도관리와 분석기술 개발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해, 의성농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성군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제분석능력평가(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2021년부터 매년 참가하여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도 FAPAS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FAPAS는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속련도 시험 프로그램으로 평가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 국제적인 분석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구축하고 2020년부터 관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분석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분석능력평가(FAPAS)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매년 참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정부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른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친환경 GAP 인증, 생산 및 출하 농산물 사전모니터링 등 잔류농약 분



석으로 의성푸드플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상품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연중 추진하여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농산물 생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는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로

다. 검사항목은 PLS제도 기준에 맞춰 463종을 분석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잔류농약 분석의 철저한 정도관리와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성농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디지털새싹캠프 운영 성과공유회 개최

초중고 학생 1,400여 명 디지털 역량 강화 AI·SW 교육 실시



경북도는 2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100여 명의 디지털새싹 캠프 강사들이 모인 가운데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의 전당, 디지털새싹 캠프'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성과공유회'를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직접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디지털 교육에 강점을 가진 포스텍, 경북도, 경북 ICT 융합산업진흥협회, 에듀플랫폼 등 산·학·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교육 캠프다.

주관기관인 포스텍과 경북도는 다양한 협력 기관과 함께 23일까지 약 1천 400 명의 학생에게 AI·SW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30일까지 1천700명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교차, 학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기초 체형 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우리 일상 속 시, 지구 지킴이 AI 문제해결 챌린지, 생성형 인공지능과 미래 진로 탐색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

합형 문제해결과 디지털 사회 이슈를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장 캠프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정우성 포스텍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변화'라는 주제로 디지털 분야 최신 동향과 SW교육 트렌드에 대해 디지털새싹 캠프 SW강사 역량 강화 강연을 진행했고, 강연 후 SW강사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느낀 점, 강습 노하우, 개선할 점 등을 공유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성과공유회를 통해 잘된 부분은 확산시켜 적용하고 개선점은 보완해 하반기 캠프 운영에 반영하겠다"라며, "개인별 학습 수준이 다르고 도농 간 디지털 격차가 커 맞춤형 교육을 어려움이 많겠지만, 포스텍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개설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 발전을 염원하는 50만 안동인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히

안동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해 눈길을 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을 납입한 기부자를 예우하고 감사의 뜻을 오래 남길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에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

온라인 명예의 전당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최고액 기부자의 이름과 소속 등을 게시했다. 익명을 요청한 1명을 제외한 19명이 명예의 전당에 등록됐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받는다. 7월 말 기준 안동시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한 답례품으로는 안동사랑상

품권(25%)을 시작으로 안동백진주쌀(11%), 안동간고등어(10%), 명품안동소주 선물세트(8%)가 뒤를 이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고향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안동 발전을 염원하는 50만 안동인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김경동 교수가 100만 원을 기탁하며 훈훈한 동행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안동고향사랑기부제에 2,083명이 2억 8,300만 원을 기부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아시아육상추진단 현판식 개최

김장호 구미시장, "2024년 경북 도민체전과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최로 노하우를 더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힘써 자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다"

구미시는 지난 23일, 시 체육회관에서 김장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윤상훈 시 체육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육상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다.

아시아육상추진단은 2개 팀 6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대회 준비 종합계획 수립 등 점차 규모를 확대해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2025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 대회는 2025년 5월 27일부터 31일

까지 5일간, 45개 국가, 45개 종목에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이자 권위 있는 대회로 우리나라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년 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구미에서 개최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3년간 전국종합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에 2024년 경북 도민체전과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최로 노

하우를 더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힘써 자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김동현/기자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성공을 기원하며...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목),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읍면동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용 상주시 축제추진위원장 등을 비롯한 축제추진위원과 각 읍면동 부읍면장 및 총무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읍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축제의 읍면동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모듈이 도전 HAT(읍면동 대항 모자게임), 상주인심맛거리(먹거리 장

터), 읍면동 장기자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모듈이 도전 HAT(읍면동 대항 모자게임)은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의 본질적 속성인 대중성, 놀이성 등을 고려하여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일명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참석자들 간 상주인심맛거리(먹거리 장터)의 먹거리 적정가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제값에 먹을 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권영문 행정복지국장

은 "국내 유일 모자를 주제로 우리 복식문화와 상주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개최되는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이름을 올려 세계모자 전시, 모자패션쇼 등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통해 'K-컬처' 세계화 및 한류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상주 태평성대 경상강명공원에서 개최된다.

김동현/기자



김천시, '팔(八)맛 대장경'을 아시나요?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역대표 특화음식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펼쳐온 결과 다양한 가공제품들을 개발했다.

이 중 김천 특색을 잘 살리고 대중성을 확보한 상품 위주로 8개 농산물가공품을 김천의 8개 맛을 알린다는 의미의 '팔(八)맛대장경'으로 선정돼 파워블로그, 인스타그램, 신문탐재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 축제, 각종 박람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8월에 홍보책자도 만들어 적극 알리고 있다.

'팔(八)맛대장경'은 김천자두와 우리

밀로 만든 532 김천밀맥주, 김천 호두로 만든 호두떡볶, 끈끈끈한 김천호두찰떡, 포도·자두·호두를 품은 김천샌드, 천연탄산의 청량감 가득한 버리막걸리, 건강과 맛을 모두 담은 자두찰떡리빙, 사인머스켓 천연 젤리 사공사공, 지레떡볶이를 똑 닮은 지레떡볶이떡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도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가공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어 "팔(八)맛대장경"의 김천의 맛을 전하는 스토리가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경상북도와 2023년 사회조사 실시

예천군은 지난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내 708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199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정부승인 통계조사로 국민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국정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며, 조사항목은 주관적 행복, 소득과 소비, 교육, 주거와 교통 등 총 47개 문항으로 경북도 공통항목 40개와 예천군 특성항목 7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과 가구마다 부여된 개별코드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김덕년 기획예산실장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며 "이번 사회조사가 예천군 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 조사요원 14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현장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교육을 마쳤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국민공감캠페인 '여행하기 좋은 도시' 선정

동아일보 주관...

"천혜의 자연 풍광 보유 및 미래 성장가능성 뚜렷"

남해군이 24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년 동아일보 국민공감캠페인 시상식에서 '여행하기 좋은 도시 부문'을 단독 수상했다.

동아일보 국민공감캠페인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과 지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6회째 진행되고 있다.

남해군은 경남권의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전남권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만나는 남해의 중심지로, 그 자체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뽐내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존에 가치를 두어 해안선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살아 있어 청정과 힐링·낭만의 이미지로 국내에 알려져 있다.

남해는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변 등 5개의 공설 해수욕장이 있고, CNN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다랭이마을, 1960~70년대 파도광부·간호사들이 고국에 정착한 독일마을, 태조 이성계가 조선건국 꿈을 품은 남해금산과 보리암 등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들이다.

2022년도에는 남해군 방문의 해를 통해 남해군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객 600만명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한 달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 층의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남해군민과 여주시민이 오랫동안 안 바라고 기다렸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남해와 여수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며, KTX와 공항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되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각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스케이프, 아난티남해 같은 국내 굴지의 숙박업소에 더해 소노호텔앤리조트의 브레이크힐스 남해리조트가 건설되며 2025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호텔시라의 403실 규모의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최근 국내 내수 여행객이 크게 감소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남해군이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힐링·낭만·정경의 보물섬 남해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홍준/기자



전남도, 원전 오염수 방류...예비비 20억 긴급 투입

어업인 돕기 위해 남도장터 할인·수도권 직거래 등 체계적 판촉



전라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름에 빠진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예비비 20억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물 판촉행사에 나선다. 지난 22일 전남도-수협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이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수산물 상생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복, 우럭, 장어, 참돔 등 생선류와 각종 해조류 가공식품을 포함한 256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소비자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전남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9월에는 서울과 전남지역에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판촉전을 펼치고, 한가위 맛이 '수산물 선물 사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10~11월에는 '취약계층 수산물 꾸러미' 지원과 '기업체·유관기관 방문 판촉활동' 등을 통해 어려운 어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예비비 20억 원을 활용한 어업인 지원 활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어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동참해 우수한 전남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중배/기자

"시장님이 궁금해요" 지역아동센터 찾아간 나주시장

송월동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윤 시장에게 초청 편지 보내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역 아동들과 유쾌한 팬미팅(?)을 가졌다.

나주시는 최근 송월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초청으로 윤 시장과 센터 아동들이 허심탄회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윤 시장의 센터방문은 여름방학 기간 센터 이용 아동들이 위인전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아동들은 '우리 지역 위인'에 대한 토론을 통해 윤 시장 초대를 건의했고 몇몇 아동들이 초대 편지를 시장 집무실로 보내게 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윤 시장과 만난 아동들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시장이 된 이유', '노

력과 준비 과정',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 등 궁금증 보따리를 풀었다.

윤 시장은 질문에 화답하며 아동들의 꿈을 응원했다.

윤병태 시장은 "미래 꿈나무인 아동들이 각자의 목표를 세워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해 고향 나주와 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인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김영안/기자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위한 3분기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2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현업업무 근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3분기 제1차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지난 2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현업업무 근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 제공 등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군은 다음달 20일 뇌심혈관질환 예방대책 및 응급조치, 스트레칭 효과 관련 내용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현업근로자 대상으로 분기별 2회씩 총 8회에 걸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과 안전 지식 함양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국 최초로 통합 도시디자인 마스터 플랜 추진하는 남원시, 이번에는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 통해 도시이미지 새롭게 브랜딩 하나

현장대책 회의 개최... 야간경관 연계사업 방향성 공유, 해결방안 논의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통합 도시디자인 마스터 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가 이번에는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으로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노력을 꾀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시에 따르면 '시내권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K-명승활용 야간관광 환경 개선 콘텐츠 구축', '남원 문화재 야행'사업 추진 관련 착수·중간보고회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을 해당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

이에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남원시 도시디자인팀, 관광개발팀, 콘텐츠기획팀, 문화유산팀 등 각 사업추진부서 관계자와 야간경관 사업 관련 용역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각 사업 추진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현장에서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에 따라 이날 '시내권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요천 벚꽃길 야간명승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아이라이트, 삼성파워랩, (주)도영이엔지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 사업추진 대상지인 춘향교~ 광한루 정문 등 현장을 순회하며, 구체적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단순 등주 교체가 아닌 인근 사업 관련 콘텐츠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시내권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K-명승활용 야간관광 환경 개선 콘텐츠 구축' 부분과 올해 4회째를 맞는 '남원 문화재 야행'사업 관련해서는 (주)에이비엔, 백두기획 등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 사업 대상지인 광한루 담장길 정문부터 서문(경외상가, 예춘 등) 복문, 동문 광한루 내부 월매집, 완월정 등을 둘러보며, 광한루원 야간경관 활용 야행 콘텐츠기획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 밖에도 이날 대책 회의에는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주)디자인다사 관계자들도 참석, 야간경관이 극대화될 수 있는 남

원시만의 도시디자인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전국 최초로 공공·경관·도시·녹화계획 등을 통합한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남원시에서 '남원의 밤' 역시 낮만큼 아름답다'는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지 위해 남원만이 지닌 야간관광 자원들에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더해 연계·확장하는 도시디자인까지 기획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도시디자인은 지양,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는 하우징 기법과 공간의 미학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시내권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 착수, 중간보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바, 이 자리에서는 한국 대표 명승인 '광한루원 활용 야간 관광환경개선 콘텐츠 구축'사업에 대해 광한루원 내 야간 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 콘텐츠 발굴 및 적절한 하우징 기법 필요하다는 방안이, '남원 문화재 야행'사업의 경우 광한루원 야간경관 활용 야행 콘텐츠 기획, 발굴 등의 방안이 해결방안으로 도출되기도 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공약 및 핵심 과제 점검 '추진력 높인다!'

민선 8기 공약 및 군정 핵심 과제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완도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군수 공약 및 군정 핵심 과제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신우철 군수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민선 8기 공약 사항과 공약 사항에 포함된 군정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은 3대 전략, 9개 분야, 총 78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은 2017년부터 준비해왔던 군 역점 사업으로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의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형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 해외시장 개척, 국가 어항 개발, 도시재생, 고품차 복지주택 및 가족센터 건립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공약 사항에 포함된 군 핵심 과제는 완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는 완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의료, 관광, 농수축산업의 연계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 효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 군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단체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군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해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공약 이행 제고 방향을 도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영울/기자

첫째는 경제, 둘째는 일자리 창출! 순천시, 하반기 기업 투자유치 시동

상반기 대기업(한화, 포스코) 유치와 정부의 화답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한 순천시 하반기 본격적인 신(新)일류 경제지도의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25일 미래 농업의 대표 기업인 (주)디와이에코사이언스와 투자액 142억 원, 고용인원 8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에 설립된 (주)디와이에코사이언스는 농업용 완효성 비료 제조기업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신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특히, 대표 제품 완효성 비료는 농업 및 원예에 사용되는 미래 지향적인 친

환경 비료로 수질 및 대기오염 경감에 큰 효과를 보이는 농업용 비료로, 대한민국의 생애수도의 랜드마크 순천시의 탄소 중립 등 생태경제 확산에 밀려들기 될 것으로 보인다.

(주)디와이에코사이언스 관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보여, 향후 친환경 원예농업 분야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하반기에는 5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고차원의 산업 지도의 영역을 확장하여, 차세대 신산



업을 선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천으로 투자유치를 결심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원박람회로 새로운 지방도

이승준/기자



신안군, 양파도 벼농사처럼 100% 기계화한다!

박우량 군수, 양파·마늘 재배 농가와 간담회 개최

신안군은 우리나라 서남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파를 벼재배처럼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100% 기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필수적인 식재료인 양파는 신안군의 대표적인 소득작물로서 한때는 1,500ha까지 재배했으나 수입농산물과 가격경쟁, 일손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현재 802ha에 344억 원이 생산되고 있다.

신안군은 8월 24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군의원, 관내농협장, 유통업체, 생산자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신안군 양파·마늘 생산자대표 등 8개 관련 단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수년 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에 대한 절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박우량 군수는 "양파의 기계화를 위해 먼저 내년부터 시범으로 600여 톤의 양

파가 톤백 수매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2030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 관내 농협 등 유통법인과 협력하여 양파는 물론 마늘까지 벼농사처럼 100% 기계화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올해 5월에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하여 자은면 등 3개 지역에서 양파, 마늘 수확 연시회를 통해 참여 농가들로부터 만족하는 일관기계화 기술을 정립했다.

앞으로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작물 기계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농가 교육을 하고 유통의 주체인 농협 등 민간 유통의 시설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필요한 국·도비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군의 발작물 기계화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는 물론 오랫동안 발농사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시달려온 고령화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가예산 확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

캠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도 자체 감사 대응 철저 주문

김관영 지사는 24일 이제 정부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으로, 국회 단계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캠버리 관련 논란 등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실국장이 국회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지사는 감사원 감사와 우리도 자체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 내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전북과 세만금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금주 마무리된 을지훈련에 대해 언급하며, "전시와 비상상황을 대비한 훈련은 실천처럼 연습하는 한편, 보완하고 숙달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 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지사는 중국이 지난 10일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석도국제회관이 운항을 재개했다며, 중국 자매 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온오프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전북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드자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다문화 학생들의 우정 하모니 "함께 걸어 좋은 길" 진도 다문화·비다문화 학생 함께하는 '너나우리' 합창단 결성

30명 단원들 '솔비치 버스킹' 등 기획...소통·교류의 장 기대



'문구점을 지나고 장난감 집 지나서/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손잡고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서 너무나 좋은 길'(창작동요 '함께 걸어 좋은 길' 중)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노래한다.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이란 노랫말을 전할 땐,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합창단 '너나우리'가 선사하는 우정의 하

모니다. 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조금 특별한 합창 단원 모임을 시작했다. 관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매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끼를 펼치고, 세상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여러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예술을 매개로 한 공연 활동,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

도록 돕는 게 우선이었다.

모집 결과 진도초·지산초·석교초 총 3개의 학교에서 13명의 다문화학생과 17명의 비다문화학생이 참여해 지난 6월 '너나우리'라는 이름의 합창단을 꾸렸다. 너와 나의 목소리로 우정의 하모니를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진도영재 예술교육원으로 모여 합창 연습을 한다. 먼 소재지에 있는 지산초·석교초 학생들은 4명씩 팀을 이뤄 '에듀택시'를 타고 온다. 20여 분을 달려 친구들과 연습 내로 나오는 즐거운 시간이다.

30명 단원이 모두 모이면,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된다. 저마다 목소리 톤에 맞춰 알토·소프라노 두 파트를 맡은 아이들은 발성 및 자세·복식 호흡 등 합창의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했다. 진도교육지원청 내 아리랑갤러리에서 펼쳐진 미니콘서트에서 합창단은 창작동요 '난 네가 좋아', '노래 숲의 아이들', '함께 걸어 좋은 길'을 감미로운 안무와 함께 선보여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김민준 진도초 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같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큰 재미를 느꼈다. 미니콘서트 경험을 살려 진도 솔비치 앞에서의 버스킹 등 지역민과 관광객들 앞에서 우리의 실력을 뽐내고 싶다."고 밝혔다.

합창단은 오는 12월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리는 'J-Arang 청소년예술단' 발표회에 '진도아리랑'을 편곡해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연습에 매진할 예정이다.

지휘를 맡고 있는 이세일 교사는 "합창은 나보다 '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 가는 장르다. 아이들이 합창 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 겸손과 예의를 자연스럽게 체화해 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합창단은 앞으로 창단 10주년, 20주년을 꿈꾸며 나아간다. 3~6학년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명예단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너나우리'가 다문화·비다문화학생을 잇는 소통·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지 기대된다.

박종배/기자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특별 건강강좌 '풍성' 김성 장흥군수 "다양한 강연과 체험 통해 건강한 삶 경험"

오는 9월 8일 막을 올리는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 다양한 건강강좌가 마련돼 이목을 끌고 있다.

장흥군은 건강에 관심있는 방문객을 위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전문강사를 초청해 특별 건강강좌를 잇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신설기획 프로그램인 '명의·명사를 만나다'에는 질병예방과 치료에 대해 광주·전남 및 국내 주요병원의 명의를 만나신다.

9월 9일 열리는 목포MBC 건강강좌에는 김중권·유하승 교수가 강사로 나서고, 이어 10일 진행되는 '우리역사 속의 의학이야기'에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초빙됐다.

12일은 오한진 교수의 '젊음을 지키는 동안 습관', 13일은 김오곤 한의사의 '건강 행복 체득, 100세 건강법'을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일반인과 박람회 방문객 모두에게 열려있는 건강강좌는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강관에서 개최된다.

박재원/기자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통합의학과 항노화부터 관, 보완대체의학과, 건강증진관 등 8개 관으로 구성된다.

130개 업체가 참여하는 헬스케어분야 종합전시·진료체험도 함께 운영된다. 올해 행사는 통합의학 진료체험과 헬스케어분야 제품 전시·체험뿐만 아니라 예년과 비교해 다수의 병원과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

전남 22개 시군 보건소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증진관 운영에 동참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다양한 강연과 체험을 통해 통합의학을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올해 통합의학박람회를 통해 질병의 치유는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점 지도점검

학교 매점, 학교 주변 문방구·분식점 등 100개소 대상

목포시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중점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점검대상은 학교 매점, 학교 주변 문방구·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0개소가 해당된다.

이 기간동안 위생과 직원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등 14명으로 구성

(7개반)된 점검반은 ▲영업신고 사항,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 ▲시설기준 관리, ▲건강진단 및 위생 교육, 조리사 고용, ▲영업자 준수사항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진열 및 판매 여부, 개인위생 관리, 보존기준 준수, 위생적 관리 여부, 어린이 정서해해식품 판매금지 준수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적법한 행정처분도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법적 기준 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열린 강좌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전남 구례군은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황희연 총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례군이 직면한 과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황 교수는 구례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방문객을 구례로 유입시키는 등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특화 전략을 펼치고 지역 자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황 교수는 지속 가능한 구례를 만들 핵심 주체는 주민이며 관광객 유치에 앞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 개개인은 내가 구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란 마음을 가지고 구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호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구례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구례군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촌유학센터 건립,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을 통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유입시키고, 맞춤형 직업교육,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동아리 활동, 마을학교 코디네이터 양성, 성인 문해 및 디지털 문해교실, 군민 정보화

교육, 은퇴자 소득창출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 추진의 거점

이 될 평생학습 허브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성현/기자



강원도, ITX-마음열차(EMU-150) 9월 1일부터 태백선을 달린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운행업무협약부터 개통기념식까지 참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25일 태백에서 9월 1일부터 운행될 차세대 ITX열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개통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먼저 태백시청에서 오후 3시에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심규언 동해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와 함께 태백선 ITX열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운행 횟수, 영업손실비용 부담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열차는 청량리역 ~ 동해역 구간을 1일 2회(상·하행선 각1회) 운행하고, 영업손실비용은 도와 강원남부지역 5개 시군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

하게 된다.

특히, 영업손실비용은 당초 59억 원으로 계산이 됐으나, 코레일과 끊임없는 협상으로 40.6억 원으로 1차 조정을 했으며, 추가 협상 끝에 코레일에서 운송 수익금 25억원을 전국 최초로 영업손실비용에서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최종 15억원으로 낮춰져 44억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나머지 15억원은 도와 5개 시군이 비율에 맞춰 분담하게 된다.

김 지사는 "강원남부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점", "지금은 태백기준 20분 단축이지만, 앞으로 운행되면서 여러 방법을 모색해 시간이 더욱 단축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손실보전금은 당초보다 많이 줄었지만,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인구 소멸 문제 해소라는 큰 틀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더욱 적극 검토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16시 태백역에서 열린 개통기념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참석해 관계기관의 장이 함께 열차의 명칭을 공개하고 열차를 점검하고 시승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태백선을 시작으로 한반도, 유라시아를 넘어까지 잇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ITX-마음으로 이름을 붙였다", "앞으로 강원 교통망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50여 년 전 시작된 이 태백선에 드디어 준고속열차가 들어온

기쁜날" 이라면서, "열차의 새로운 이름 ITX-마음은 강원 남부권 주민이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라며 열차의 도입을 시작으로 강원 남부권의 교통망이 개선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도입되는 열차는 최고속도 150km/h로 달릴 수 있으나, 노선의 노후화와 신형 열차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최고속도 70km/h로 달리게 되며 무궁화호열차로 청량리-태백역 기준 204분 소요됐으나, 새로 도입되는 열차로는 18분 감소된 186분이 소요되며, 안정화 시 최대 36분이 감소되어 2시간 48분까지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원/기자



통영시, 태백산의 기운을 품은 강원도 태백시와 자매결연 체결

국내유일 고원도시 태백시와 교류의 장 마련



통영시는 25일 강원도 태백시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 자치단체의 발전적 교류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양 시의 시장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매결연을 축하했으며, 양 시장이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자매도시로서 관계

형성과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을 열게 됐다.

강원도 태백시는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환동해권역(러시아, 일본, 중국)의 영동, 태백선과 연결돼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레저스포츠 중심 고원관광 휴양도시이다.

백두대간 중추에 자리 잡은 태백산 천제단 산악문화를 계승한 고장으로,

민족의 영산 태백산이 품은 생명의 근원이자 민족의 젖줄인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로 해발 700m 가 제공하는 4계절 이상적인 도시 환경으로 스포츠레저도시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축제로는 1월 태백산 눈축제, 4월 태백 산나물 축제, 7월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인 태백 선선 페스티벌 등이 있으며 특산물로는 고원도시의 장점을 살린 고랭지 배추, 태백산 한우 등이 있다.

통영시에서는 그 동안 지역 간 교류 실적이 없는 강원권 도시와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월 개최한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으로 통영시를 방문한 이상호 태백시장과 친선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양 시의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자매도시로서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오늘의 협약식은 한반도 백두대간에서 가장 크게 밝은 산, 태백의 기운을 듬뿍 받아 통영시

와 태백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며 "양 도시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접목시켜 스포츠 대회 유치 등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300년 통제영 문화의 통영시와 태백산 천제단 산악문화의 태백시가 각 지역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한다면 풍부한 문화발전, 상호경제발전과 더불어 시민 분들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며 "오늘 행사가 의식적인 행사가 아닌 양 도시의 실질적인 도움과 발전을 주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자매, 친선결연 협약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 관심분야 정보 공유, 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영시와 태백시는 스포츠,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준/기자

김홍규 강릉시장,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장려 챌린지' 참여

민선 8기 공약 및 군정 핵심 과제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김홍규 강릉시장은 25일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위축된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어업인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8월 14일 최선운 강원중소기업 회장(강릉초당두부 대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속초해양경찰서장(서장 박형민)과 동해해양경찰서장(유충근 서장)을 지목했다.

이동원/기자

한편,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챌린지'는 지난달 27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최초 시작했으며, 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동참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수산물 소비 확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지역의 어촌과 수산업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동해안 최적의 도심 속 속초해수욕장 "굿바이 속초 썸머 페스티벌" 공연으로 내년 기약

강원도 내 86개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늦게 문을 닫는 속초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여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랠 '굿바이 속초 썸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저물어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면서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 막바지 피서객들과 그동안 관광객 맞이로 분주했던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무대로써 해수욕장 폐장 하루 전인 8월 26일 오후 7시 개최된다.

이번 공연에는 속초를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 '후니정',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하는 '속초 좀바', 여름밤 깊은 감동을 선사할 '리어 오케스트라', 흥대최고의 인디밴드인 '어디든 프로젝트', 모든 장리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는 10인조 밴드 '핑키투나잇'이 무대에 나서 두 시간여 동안 공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 도내 해수욕장이 8월 20일부로 모두 폐장한 가운데, 속초 해수욕장만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8월 27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시에서는 마지막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설관리 등 막바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에서는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태풍 카논과 너울성 파도로 인해 유실된 백사장 평탄화 작업을 마쳤으며, 태풍을 피해 위해 일시 철거했던 상어 방지 그물망



도 재설치했다.

한편, 속초시에서는 지난여름 동해안 각지에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상어(백상아리)가 다수 발견되자 해수욕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상어 피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해수욕객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저물어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며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 막바지 피서객들과 그동안 관광객 맞이로 분주했던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본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석해 속초해변에서의 마지막 여름밤을 함께 주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더욱 멋지고 알찬 내용으로 관광객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태백시, 문단계 아이돌 박준 시인의 '태백 한 달 살기' 프로젝트 '박준 시인 북토크' 개최

태백시는 너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심신의 휴식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박준 시인 북토크'를 개최한다.

박준 시인은 계간 '실천문학'으로 2008년 등단했으며, 2012년 발간한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60쇄 돌파, 10만 부 이상이 팔린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시인은 한 달 동안 머물며 태백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일상을 사진과 글로 기록한 여행 에세이집 '태백에서 보낸 한 철'을 집필하고, 머무는 동안 북토크를 통해 시민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다.

유상근/기자

1회차인 8월 30일은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독서와 인문학)', 2회차인 9월 12일은 '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생활 글쓰기)'이라는 주제로,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을 진솔하게 나눌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의 제재(題材)로 선택할 만큼 태백을 즐겨 방문하는 시인의 애정을 시민들이 직접 들으며 공감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태백의 가치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딩을 확대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2023 생생문화제 국제문화 나눔축제 '너나들이'

8월 26일(토) 오후 6시, 원주 강원감영

원주시역사박물관은 8월 26일 오후 6시에 원주 강원감영에서 '2023 너나들이 국제문화 나눔축제'를 개최한다.

(사)원주매지농악보존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재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원주의 대표 무형유산인 "원주 매지농악"을 활용한 축제이며, 올해 여덟 번째로 진행된다.

일본, 중국,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다양한 나라의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참여해 각국의 전통예술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공연 외에도 한복체험, 포토서비스,

김정환/기자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니마켓도 운영한다.

원주매지농악보존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각국의 아름다운 음악과 전통문화예술의 즐거움을 현장에서 느끼시고 원주매지농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은 "원주시는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도, “도민 모두에 에너지 복지 혜택 제공할 것”

도-논산-서산-도시가스회사 ‘소외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협약



충남도가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논산·서산읍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이는 올해 민선8기 2년차 도지사 시군 순방 당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도는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한권희 제이비(주) 대표, 박영수 (주)미래엔서해에너지대표가 ‘논산 강경읍·서산 운산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특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와 논산·서산시는 도시

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특별지원금 확보 및 각종 행정 지원에 나서며, 제이비와 미래엔서해에너지도 특별재원을 마련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사업대상은 논산 강경읍 3750세대 42km, 서산 운산면 630세대 13km이며, 총 사업비는 348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기관은 논산·서산 뿐만 아니라 타 시군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집단 공급하는데 힘을 합친다.

도는 매년 500억원(소외지역 60% 이상 투자)의 예산을 투입해 연 3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지난해 기준 73.9%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2032년 83%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급에 한계가 있는 지역은 △마을단위 엘피지(LPG) 배관망 사업 △읍면단위 중규모 엘피지 배관망 구축사업 등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한다.

2013년부터 마을당 3억~4억원을 지원한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은 지난해까지 91개 마을, 39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13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충남은 1993년 천안-아산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청양까지 모든 시군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 지원하고, 경제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엘피지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논산·서산을 단초로 해서 도민 모두에게 에너지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시장 '온천도시 지정 현장 심사단' 영접... "국내 최고 온천 도시 아산, '1호 온천도시' 돼야"

아산시, 온천도시 지정 현장 심사 마쳐

박경귀 아산시장의 온천도시 지정 평가를 위해 아산을 방문한 심사단을 영접하고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롭게 온천산업을 부흥하려는 시의 의지를 피력했다.

온천도시 지정 심사단은 24일 아산시 음봉면 염치 산단에 있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온천도시 지정은 박경귀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박 시장은 그간 온천의 의료적 효능 검증 등을 통해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문화에서 치유·치료의 온천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날 박 시장의 심사단 영접과 시설 안내 역시 온천도시 지정과 이후 관련 사업 추진 등을 향한 아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박 시장은 심사단에게 “목욕 중심 온천문화의 중심지였던 아산시가, 이제는 온천의 의료적 효과검증을 통해 온천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가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립한 온천 전문기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시설과 장비, 임상실험 현장 등을 안내하고, 2021년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시범 사업 수행 성과와 온천 효과의 의료적 검증을 위한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박 시장은 “국내 최고(最古) 온천 역사를 자랑하는 아산시가 ‘1호 온천도시’ 브랜드를 획득하고 여러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온천 산업 전체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정 당위성을 브리핑했다.

심사단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이어 관내 대표 온천 레저 시설인 아산스파비스와 도고 파라다이스스파를 방문해 특화 온천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떠났으며, ‘1호 온천도시’는 28일 PT 발표 심사 이후 8월 내 지정 예정이다.

한편 온천도시는 온천 온도 및 성분, 온천 관련 지역축제,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따져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온천도시 지정 공모에는 충남 아산시를 비롯해 충북 충주시,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등이 도전장을 던졌으며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사연수 성료

초·중·고 교사 등 대상 방사광가속기 연계 교육 성료

충북도는 충북교육청, KBSI(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와 공동으로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세계 최첨단 과학실험 시설인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도내 초·중·고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속기 교사연수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은 가속기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초·중등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에 연계함으로써, 미래 방사광가속기 연구·관리 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수 내용은 가속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룬 심화 강연, 포항가속기연구소 홍보관 투어, 가속기 빔라인 시설, 장비 견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소속 연구원을 강연자로 초빙해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빔라인 등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충북 청주에 구축될 다목적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최신 지식·정보 습득은 물론, 가속기에 대한 즉각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교육 이해도를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론으로만 접했던 방사광가속기를 현장에 와서 직접 체험해 보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구축될 방사광가속기의 활용 및 효과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2021년부터 방사광가속기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교육청, KBSI와 공동으로 도내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도는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진로 탐색까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충북의 청소년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속기 스쿨, 청소년 연구체제, 온라인 및 비대면 과학 KIT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방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충북도, 대마재배지 불시점검 및 재배자 현장지도 강화

대마재배지 불시점검을 통한 대마엽 불법유통 등 안전 관리 철저

충북도는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 도내 대마재배지 6개 시군 9개 농가 5.4ha를 대상으로 대마재배 폐기 보고 여부와 대마엽 부정유통 등 마약류 관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수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마사범이 점차 증가 추세이며, 대마는 '입문용 마약'이라고 불림에 따라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이번 점검 시 대마재배자를 대상으로 대마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심각성을 안내하고, 대마 잎의 폐기 방법과 보고요령과 마약류 관련법령 위반 시 법적 사항에 대해 지도·계몽도 실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마재배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해 대마 불법 유통 방지에 보다 힘쓰겠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인근 경찰서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남도,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 본격 가동

이상동기 범죄(문지마 범죄) 등 사회적 폭력 선제 대응 논의

경남도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

경남도는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로 25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이상동기 범죄(문지마 범죄), 스토킹, 학교 폭력, 교권침해 등 사회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7일 박완수 도지사는 '사회적 폭력 예방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재하여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회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경남도는 사회적 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도, 교육청, 경찰청, 경남자율방범연합회 등 실무 부서장급 1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인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시군, 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이 지정한 범죄 예방강화구역(62개)과 여성안심귀갓길(103개) 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치안 취약

지역을 전수 조사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셉테드)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은 조명, 방범시설 설치, 도로포장, 도로.골목 미관 정비 등 도시·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는 기법이다.

또한 공원, 등산로 등을 비롯한 범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대 설치해 빈틈없는 치안망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며, 전담팀 회의는 매주 2회 행정부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사회적 폭력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회의는 단발적 문제 해소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폭력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진단전문기관 11곳 합동 실태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한 안전 점검 예방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강원도 내 등록된 107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1곳을 표본 선정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특별자치도,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 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점검 진단 실적 유무, 무자격자 참여, 변경사항 미신고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제한, 점검·진단 실적 충족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난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무자격자 참여 업체 5곳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한 바 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진단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금회 실태점검을 통해 법률 준수 책임의식을 높ی겠다"고 했다.

이흥원/기자

울진군, 8월 3차 민선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회의 개최

울진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국장, 정책홍보관, 실장, 관련 부서 과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하여 8월 3차 민선 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 주요 정책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 울진군 해안도로 연결 및 관광 자원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 남대천, 왕피천 꽃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 울진의 역사 인물 발굴 및 공간조성 방안 용역에 대하여 추진 상황 및 문제점 검토와 호

의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주요 정책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작업 없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해안도로의 경우 대표 도로를 선정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특징 있는 공간조성 방안 그리고 꽃길 조성은 자신 있게 관광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역사 인물 발굴 용역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용역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Refresh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세계 최대 양식 박람회인 아쿠아노르(Aqua Nor) 2023 참가한국-노르웨이 연어산업 교류를 강화한다!

강원형 K-연어 육성전략 수립하여 대한민국 연어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노르웨이 연어산업 조사 대표단은 "세계 최대 양식 박람회인 아쿠아노르(Aqua Nor) 2023 및 한-노 연어산업 교류 세미나에 참가해

세계 최대 연어생산국인 노르웨이 연어 산업 발전 노하우를 토대로 강원형 K-연어 육성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 아쿠아노르(Aqua Nor)는 세계 30개국 593개 기업, 3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여 양식기술 전시, 컨퍼런스, 기술 정보교류 등을 진행하는 행사로 1979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양식 박람회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양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 강원원주대학교와 대표단을 구성해 양식, 기자재, 유통, 가공, 사료, 부산물 등 전후방 산업별 세부 역할을 나누어 세계 연어 관련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했고, 연어산업 육성에 필요한 노하우 및 트렌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노르웨이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고, 최대의 연어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강원형 K-연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람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작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에서 개최한 "국제 연어 스마트양식 심포지엄"을 통해 맺어진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주최한 연어산업 교류 세미나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단 및 노르웨이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했으며, 김영선 강원특별자치

도 행정부지사와 토레 샌드빅 트론드락 주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연어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에서 추진 중인 전문인력양성을 활용한 기업교류 및 R&D 추진 등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어 양식산업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와 세계 최대 연어 양식 클러스터인 NCE 아쿠아텍 클러스터의 노르웨이 양식과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노르웨이의 연어양식 전후방 기업 중 분야별 대표기업들의 소개 및 보유 기술 교류를 통해 노르웨이의 연어산업 성공 노하우와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 세계 60조 원의 연어산업 규모는 향후 2030년까지 17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세계 연어산업을 선도하는 노르웨이 연어산업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최대.최고의 연어산업 중심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세부전략과 비전을 수립하여 연어 산업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0회 대한민국 SW융합 끝장 개발대회 개최

울산에서 '제10회 대한민국 SW융합 끝장 개발대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를 향한 SW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주제로, '제10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해커톤 대회'를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42.195시간(무박 3일)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코딩 및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시제품(프로토타입)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SW개발 경진대회이다.

본 대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전국 12개 SW융합 산학협력단지(SW융합클러스터)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울산광역시 등을 포함한 총 1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I, 지정과제II 등 총 3개 과제로 운영되며, 지정과제I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정과제II는 개최지인 '울산'의 지역특색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① 자유과제 : 디지털신기술(AI, 데이터 등) 기반 SW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② 지정과제 I : 사회문제(고령화사회, 기후문제, 디지털범죄, 스마트시티 등) 해결을 위한 SW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③ 지정과제 II : 선박 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개발

전국 각지의 SW융합기술에 관심 있는

만 15세 이상 중고등, 대학생 및 일반인 등 총 100개 팀 327명이 지역별 예선에 참여했으며, 최종 선발된 77개 팀이 무박 3일 동안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에는 SW전문가, SW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전문 길잡이(멘토단)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기획 및 발전, 개발방향 개선, SW개발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SW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한다.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별(자유 1개, 지정 2개)로 대상(장관상, 500만원) 3팀과 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및 시·도지사상, 300만원) 13팀 등 총 16개 팀에게 상장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5,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올해는 울산지역 대기업(HD현대중공업, HD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의 특별상(대표이사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별도로 수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드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SW융합을 주제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지역 내 우수한 디지털 융합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0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사무국 누리집 또는 해커톤 대회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강릉시, 벼 품종 비교전시포 현장평가회 개최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과 지역적응성이 우수한 품종 직접 비교하여 선택

강릉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오전 강동면 하시동 외 3개소에서 벼 품종 비교전시포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회는 쌀전업농 신승대 강릉시회장을 비롯한 강릉시 관계자와 관내 벼 재배농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4개 품종을 벼 재배 농가들에 선보이고 각 품종의 생육상태를 비교 평가한다.

많은 벼 품종 중에서 강릉지역에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혼란을 덜고, 우수한 품종 선택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과 병충해에 강하고 지역적응성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을 직접 보고 선택하는 기회를 농가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응성이 가장 높은 4개 품종을 선정하여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회에 참석한 한 농가는 "매년 벼 품종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각 품종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품종 비교전시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농업인들이 벼 품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강릉쌀의 명성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제10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SW융합 기술 및 서비스

주요과제 : DNA(Data, Network, AI) 기반 SW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지정과제 ① : 사회문제(고령화 사회, 기후문제, 디지털범죄, 스마트시티 등) 해결을 위한 SW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지정과제 ② : 선박 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개발

구분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자유과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지정과제 I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지정과제 II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THE 104th NATIONAL SPORTS FESTIVAL

10.13 ~ 10.19

전라남도 목포시

2023년 10월, 11월 스포츠 대축제

대한민국 맛의수도 목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포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43rd NATIONAL PARA GAMES

2023.11.3~11.8

단디짜꿍과 함께 하는 '2023사제동행 해외체험연수 평가회' 개최

선생님과 함께 한 감동 충만 해외 연수, 2학기는 더 밝고 힘차게 임종식 교육감, "학생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 이겨 내는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25일(금), 웅비관에서 '단디짜꿍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 해외 체험연수'에 참가한 학생과 교직원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수 평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단디짜꿍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 해외 체험연수'는 위기 극복 감동 스토리 공모에 선정된 교직원과 짜꿍 학생 총 70명이 2팀으로 나누어 일본과 대만을 방문하며 사제 간의 깊은 정을 나누었다.

해외 연수에 참여한 송라중학교 배성우 학생의 리코더 연주를 시작으로, 해외 연수 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과 연수 참가 소감 발표, 감동 성장 스토리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소감을 발표한 6명의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이번 연수는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물받은 시간이었으며, 연수를 추진해 준 경북교육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연수에 참가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즉석에서 해외 연수에서 촬영한 사진 콘테스트를 투표로 진행해 최고 짜꿍 사진 5팀을 선정·시상했으며, 함께 한 시간을 담은 사진을 머그컵과 액자로 제작해 나누어 주기도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제동행 해외 체험 연수를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께 용기와 희망,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 뿌듯하다"며 "학생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 이겨 내는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관내 초·중 통합운영학교 생존수영교육 실시

박재식 교육장, "영덕 교육의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시도가 필요, 학교와 학생에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지원청의 노력" 당부해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금)부터 오는 31일(목)까지 5일간 지품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존수영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박재식 교육장은 "나날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산·어촌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덕이 교육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시도가 필요하며 학교와 학생들에게 직접 와 닿는 교육적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장문화/기자



2023년 경북미래교육지구 마을교사(활동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 교육 콘텐츠의 결합 방안 제시 임종식 교육감, "마을학교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과 방과후 활동을 지원,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 결합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관심과 노력" 당부



경북교육청은 지난 25일(금), 소노벨 청송에서 '2023년 경북미래교육지구 마을교사(활동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북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8개의 지구(경주,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문경, 청송, 칠곡)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연수는 마을교사와 마을활동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 미래교육지구 교직원 등 160명을 대상으로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강연과 지구별 마을학교 운영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마을학교 운영에 공로가 큰 마을교사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연수에 참여한 마을교사들은 "많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타 지구의 마을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마을학교 운영을 연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을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남교육청, 청소년 도박위험군 조기발견·회복지원

학교 관리자 연수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 역량 강화

전라남도교육청이 25일 호텔현대 바이라는 목포에서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역량 강화 연수를 가졌다.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내 도박위험군 학생 조기발견 및 회복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연수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9일(화, 여수히든베이), 30일(수, 전라남도청의용화교육원), 9월 5일(화, 보성다비치콘도)까지 권역별로 열린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 청소년 도박 실태 △ 청소년 도박문제 이해와 대처방안 등을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도박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

인 방법을 모색한다.

손익의 경정(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학교폭력은 물론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박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세심하게 잘 살펴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 내 도박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도박예방 및 회복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연습을 실전처럼'칠곡교육지원청, 2023 을지연습 실시

최원아 교육장,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 전 직원 모두가 실전에 입하는 자세로 을지훈련에 임해 감사하고 칠곡교육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칭찬해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칠곡교육지원청 종합상황실과 실제 훈련장소 등에서 '2023 을지연습'을 실시하였다.

첫날인 지난 21일 오전 6시, 비상소집 발령을 시작으로 진행된 '2023 을지연습'은 ▲비상대비 메시지 처리훈련 ▲현안과제 토의 ▲민방공 대피훈련 ▲화재 대피훈련 ▲에비소산시설 이동훈련 등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3일차인 지난 23일에는 을지

연습과 함께 전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됐다.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민방공 훈련'으로도 불리는데, 칠곡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청사 내에 마련된 대피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였고, 왜관중학교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다.

최원아 교육장은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교육지원청이 국가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강평했으며, "점차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전 직원 모두가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참가해 줘서 감사하고, 우리 칠곡교육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동현/기자



봉화 재산초, 여름 수중안전활동 체험하다!

변갑순 교장, "즐거움 여름 수중안전활동 현장체험에 만족한다." "앞으로 이런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계획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해

봉화 재산초등학교는 지난 23일(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하이원 워터월드를 다녀오는 즐겁고 색다른 시간을 가졌다.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사전답사를 거쳐서 학생들의 동선 및 안전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물놀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서로서로 어려운 활동이나 동작을 도와주고 부족한 면을 서로 알려주고 용기를 주

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5학년 송○○ 학생은 "오늘 체험학습을 하기 전에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실제로 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 보니 몸 상태도 좋아지고 이렇게 큰 워터파크에 와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본교 변갑순 교장선생님은 "모두가

즐거워하는 여름 수중안전활동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체험학

습을 적극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양시현/기자



금천구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주세요!

9월 5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 '엠보팅' 모바일 앱에서 투표

금천구는 9월 5일까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규모는 총 15억 원이다.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제안형' 사업(9억)과 주민자치회 및 협치회의의 공론을 통해 발굴하는 '주민협치형' 사업(6억)으로 나뉜다.

금천구는 '주민제안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월부터 2달간 공모하여 185개의 제안사업을 모집했다. 이어 소관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7개의 사업을 주민투표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또한 '주민협치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및 협치회의의 공론 과정을 거쳐 총 11개(주민자치회 5개, 협치회의 6개)의 사업을 주민투표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금천구민, 금천구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누구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 또는 '엠보

팅' 모바일 앱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제안형' 투표는 ▲ 교통/주택 ▲ 복지/여성 ▲ 경제/문화/관광 ▲ 공원/환경 ▲ 교육/청소년 5개 분야마다 1~2개 사업씩 총 9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주민협치형' 투표는 ▲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 협치회의 제안사업 2개 분야마다 2개 사업씩 총 4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9월 개최 예정인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동네발매 행복도시 금천

“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2024년 금천구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주세요!

- 투표기간 2023년 8월 23일 (수) 09:00 ~ 9월 5일 (화) 18:00
- 투표대상 총 38개 사업 (주민제안 27개, 주민자치 5개, 협치회의 6개)
- 참여대상 금천구 주민 누구나
- 투표방법 QR코드 인식 또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 (mvoting.seoul.go.kr) 접속
원하는 사업 선택 및 투표 (주민제안 9개, 주민자치 2개, 협치회의 2개)
- 문의 금천구청 자치행정과 (☎ 02-2627-2205)

서대문구, 2023 국민공감캠페인 '미래혁신경영' 대상 수상

과감한 혁신정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의 기틀 마련한 성과 인정받아

서대문구는 이달 24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국민공감캠페인'에서 미래혁신경영 부문 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지자체, 기업, 단체의 우수 공감 경영 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구는 '행복 100% 서대문! 젊은경제·바른행정·신속성장 바로 서대문!'이란 비전 아래 신속한 지역개발, 편리한 도시교통 체계 구현, 생애 주기별 체계적인 복지 정책, 감성이 살아 있는 문화생태도시, 대학과 지역이 소통하는 교육도시 등의 주요 구정 목표를 세웠다.

이후 민선 8기 출범 1년여 만에 과감한 혁신정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 심사에서 구는 서울 서북권의 명소인 홍제천 '카페 폭포' 조성, 10년 동안의 주민 숙원이었던 북아현 과선교 착공, 관내 50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인생케어평생학습관과 진로진학지원센터 조성 등 미래교육 기반 마

련',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해제와 스타세프 팝업 레스토랑 운영 등 신촌 이대 권역 상권 활성화',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여자실업농구단 창단 및 서울시민체육대축전 2년 연속 종합우승'도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형식과 격식을 탈피한 생활밀착형 선도사업 추진'도 수상의 주요 사유로 꼽혔다.

서대문구의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체험주택 운영' 등이 그 예인데 이 사업들은 앞서 지난달 열린 '2023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끌었으며 구청장 직통 문자 개설, 온·오프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등을 통해 주민과의 공감과 소통에도 힘써 왔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신한 정책 추진과 구민 요구에 집중하는 흔들림 없는 구정 운영으로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3년 '성북창작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자 모집, 성북 창업문화 확산에 마중물 역할 '톡톡'

성북창작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역량 증진

서울 성북구가 월곡동에 위치한 시제품제작소 '성북창작소(오패산로 1길 57)'에서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3년 성북창작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자를 모집중이라고 밝혔다.

'성북창작소'는 성북구가 운영하는 시제품제작소로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와 작업 공간을 갖추고, 예비창업자와 예술가, 대학생, 일반시민 등 메이커 창업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이용을 원하는 구민에게 무료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2023년 성북창작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융복합 분야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내 창작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활동이다. 구는 참여자에게 참신한 소재를 활용한 생활개선 제품 등 시제품 제작 역량을 키우고 메이커 경험을 쌓을 기회

를 제공한다.

이번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대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등 지역과 관계없이 창작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사람만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성북창작소 블로그를 통하여 진행된다.

공모전은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최소 1명 이상 최대 5명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활동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며, 참가팀은 필요시 온·오프라인 멘토링과 레이저커팅기, 3D프린터 등을 이용한 장비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가팀에게는 팀당 2~300만원 상당의 디자인 프로토타입, 시제품 제작 및 성북창작소 내 공유 공간과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모전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는 3팀(최우수-1팀, 우수-2팀 선정)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보상을 제

공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성북창작소를 관내 대학생과 일반인, (예비)창업자에게 홍보하고, 참여자의 도전적인 창업 아

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창업문화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성원/기자

2023성북창작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투표기간 2023.08.11 ~ 09.05

참가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예천_회룡포

예천_곤충생태원

예천_강물화전시관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79,848개 yecheon #육지안익심 #봉봉다리 #트래킹

좋아요 89,719개 yecheo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좋아요 69,752개 yecheo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좋아요 82,134개 yecheo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밤에 피는 꽃', 기획 단계부터 웹툰·드라마 동시기획... MBC '텐트폴' 기대작 편성

MBC 새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의 원작인 동명의 웹툰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공개됐다.

MBC 새 드라마 '밤에 피는 꽃'(극본 이생, 정명인 /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제작 베이스스토리, 필름그리다, 사람엔터테인먼트)의 원작인 웹툰 '밤에 피는 꽃'(원안 베스 / 각색 풀이 / 그림 정로 / 채색 유나)이 지난 14일(월) 카카오페이에서 공개 성공리에 론칭했다.

웹툰은 공개와 동시에 로맨스 장르 1위, 평점 9.9를 기록하는 등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웹툰 '밤에 피는 꽃'은 웹툰 '장씨세가 호위무사', '마른 가지에 바람처럼', '천신의 요람' 등 완성도와 대중성 모두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 베이스스토리가 웹툰, 드라마를 동시 기획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에 기존 웹툰 팬들의 '밤에 피는 꽃'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웹툰의 런칭과 함께 MBC 드라마 '밤에 피는 꽃'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겁다.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낮에는 조신한 15년 차 수절과부이자 밤마다

복면을 쓰고 담을 넘어 백성을 돕는 이중생활 중인 여화가 절대 선 넘지 않는 종사관 수호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의 웹툰과 동일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웹툰에서 담지 못한 확장된 이야기와 다채로운 캐릭터 변주를 더해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제작사 관계자는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웹툰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감상하는 동시에 향후 방송되는 드라마와의 싱크로율,

각색 포인트를 비교하며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재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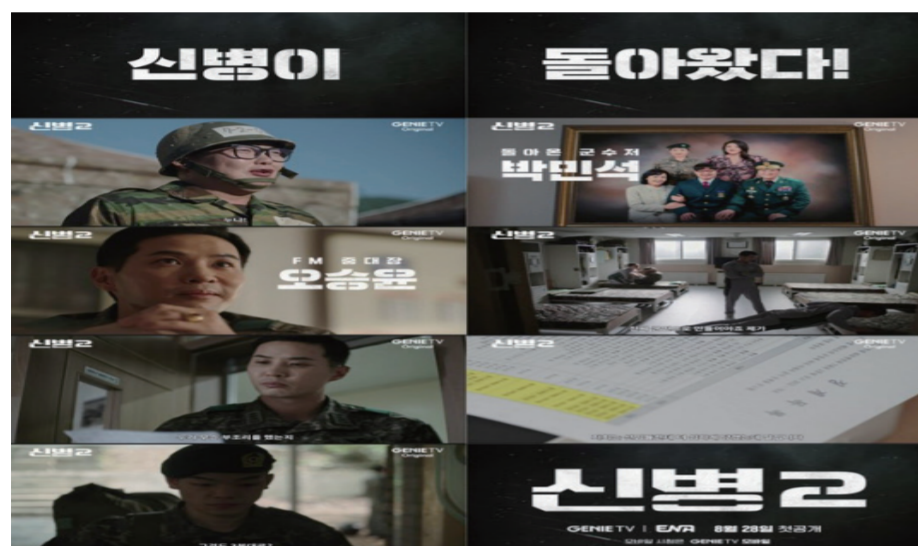
한편 드라마 '밤에 피는 꽃' 주인공 '조여화' 역에는 배우 이하늬가 '박수호' 역에는 이종원이 캐스팅돼 얼마 전 촬영을 마무리했다.

원작 웹툰을 필두로 2023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MBC 새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올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현재 후반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만식/기자



'신병2' 일병 달면 편해질 줄 알았던 '군수저' 김민호의 파란만장 생활관 라이프 재시동!



'신병2'가 웃음도, 스케일도 두 배로 장착하고 돌아온다.

오는 28일(월) 첫 공개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신병2'(연출 민진기, 극본 장배쭈·윤기영·허혜원·지정민, 기획 KT 스튜디오지니, 제작 A2Z엔터테인먼트·네오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신화부대를 강타한 폭풍이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다.

신화부대 개조 작전에 돌입한 중대장 오승윤(김지석 분), 더 빠르게 병영 생존기를 맞닥뜨린 부대원들의 변화가 돌아온 '신병2'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신병2'는 일병만 되면 편해질 줄 알았던 신병 박민석(김민호 분) 앞에 화성방보다 독한 중대장 오승윤이 부임하면서 펼쳐지는 파란만장한 생활관 라이프를 그린다.

인기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장배쭈'에서 누적 조회수 2억 5천만 뷰를 기록한 동명의 메가 히트 애니메이션을 원작

으로 한 하이퍼 리얼리즘 밀리터리 코미디로

다이나믹한 캐릭터에 리얼리티를 극대화한 열연, 유쾌한 코미디와 절묘하게 어우러진 현실 공감이 성별과 세대를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신병2'에서는 생활관을 벗어나 유격, 화성방, 고난의 행군 등 시즌1에서 다루지 못한 다채로운 에피소드들이 그려진다.

첫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은 신화부대에 일어난 다이나믹한 변화를 예고한다. '군수저' 신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한 박민석은 뱃속까지 '찐' 군인 중대장 오승윤의 부임과 동시에 파란만장 군생활 2막을 맞는다.

여기에 유격 훈련 교관인 친누나(이수지 분)의 범상치 않은 등판은 그에게 찾아온 격변을 짐작케 한다.

신화부대를 싹 갈아엎겠다는 각오로 등판한 FM 중대장 오승윤의 카리스마도 포착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찐짜'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중대장의 광기에 신화부대원들은 맨붕에 빠진다.

특히 "이번 달 안으로 만드자. 특급 전사"라는 날벼락 같은 지시를 받은 박민석의 동공 지진은 웃음을 자아낸다. 특급 전사가 아니면 휴가도 없다는 폭탄 선언에 이어진 혹독한 훈련은 부대원들의 영혼까지 탈탈 탄다.

한편 신화부대를 발각 뒤집은 사건들도 심상치 않다. '악마신인' 강찬석(이정현 분)의 아찔한 컴백, 그리고 시작된 계급전쟁은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무엇보다도 중대장실에 도착한 마음의 편지 한 통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다.

군대 부조리를 폭로하는 편지가 어떤 파란을 일으킬까. 급기야 비장의 '아빠 찬스'까지 꺼내든 박민석의 역대급 위기, "너희들은 안되겠다"라며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집합시키는 오승윤의 극대노는 이들의 험난한 병영 생존기 2막을 예고한다.

과연 오승윤이 신화부대 개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신화부대원들은 더욱 빠르게 군생활을 견뎌내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개되자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민석이 벌써부터 짠내 폭발!", "한 달 안에 특급전사 변신? 민석이 힘내자", "중대장 김지석의 광기 풀 미쳤다! 신화부대 개조에 진심", "시즌2도 우당탕탕 기대해", "달라진 시즌2 기대, 강찬석 컴백 무슨 일이야~?! 벌써 아찔"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지니 TV 오리지널 '신병2'는 오는 28일(월) 지니 TV와 지니 TV 모바일, ENA를 통해 첫 공개된다.

최만식/기자

9월 1일 첫방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 메인 포스터 공개...따뜻한 가을밤 선사 예고!

KBS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 공식 포스터가 베일을 벗었다.

24일 KBS 측은 오는 9월 1일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 메인 포스터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상반된 표정으로 자유분방한 매력을 발산하는 AKMU(악뮤)와 함께 프로그램의 제목 및 공식 로고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리본과 풍선, 케이크 등 독특한 소품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악뮤가 가진 유니크한 무드를 배가시키고 있다.

뮤직 토크쇼다.

악뮤는 앞서 30년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 사상 최초의 2MC로 발탁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매주 특별한 뮤지션들과의 만남을 통해 악뮤만의 트렌디하고 따뜻한 감성을 예고한 만큼 첫 방송을 향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더 시즌즈'는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 최초로 '연간 프로젝트'라는 색다른 방식과 로고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리본과 풍선, 케이크 등 독특한 소품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악뮤가 가

전임 MC 박재범과 최정훈에 이어 세 번째 시즌의 MC로 출격하는 악뮤는 통통 튀는 매력으로 진행을 이끌 예정이다. 또한 밴드 마스터 정정훈을 비롯해 이태욱, 박종우, 장원영, 신예찬으로 결성된 하우스 밴드 '정마애와 쿵치타치'와 선보일 음악적 케미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KBS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은 오는 9월 1일 밤 10시 KBS 2TV에서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최종라인업 40팀 확정...25일부터 공식 티켓 판매 개시

전인권 밴드, 카디, 이근형(작은하늘), 인디스팡스 5개팀 등 8팀 추가 공개

경기도 인디뮤지션들의 최대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인뮤페 2023)’ 최종 라인업 40팀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25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지난 11일 발표한 23팀에 이어 ▲전인권 밴드, 카디, 이근형(작은하늘) 등 3팀 ▲인디스팡스 결선에 오른 더 픽스, 사운드힐즈, 왓에버밋민즈, 윈디비(1DB), SEMA 등 5팀 ▲오픈 스테이지에 오를 8Train, UN, Funkin Cat, SEESEA, yunji, QUIBBIE, RB, CONG VU, GCM 등 9팀 등 총 40팀을 공개했다.

나 1일권을 각각 구매 시 발생하는 중복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해 2일권과 3일권도 한정 수량으로 정가 판매한다. 8월 18일 판매했던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 열리버드 티켓 3일권은 1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 ‘경기뮤직’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은 인디뮤지션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인디신(Scene) 선후배 뮤지션을 초청해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이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25일 오후 2시부터 공식(오픈) 티켓도 판매를 시작했다. 오픈 티켓은 요일별 1일권이 3만 원으로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애초 오픈 티켓 판매는 1일권만 한정 판매하려 했

의성군, 제2회 전국 전통주경연대회 예선심사 개최

의성군은 9월 9일 의성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가양주 경연대회를 선발하는 ‘제14회 가양주 酒人선발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가양주 酒人선발대회’는 최고 권위의 우리 술 경연대회로써, 조상에 올리는 제주나 절기마다 빛이 마셨던 계절주 등 다양한 형태의 술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기획한 가양주(家釀酒, 집에서 빚은 술) 경연대회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주최해왔으나 쌀과 전통주 소비 확산을 목표로 대회를 주관해온 (사)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전통주 대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과의 상생을 모색하면서 쌀 소비와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는 의성군과 뜻을 같이하면서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이번 축제는 의성군에서 2회째를 맞이하는 대회로써 순곡(쌀·누룩·물) 탁주와 순곡 약주 부문에서 전국 참가자 모집(5월)을 실시하고 일반인 참가자 256명이 신청함으로써 역대 최다(最多)를 기록했다. 또한 의성에서도 7명이 신청하여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체감했다. 신청자 256명은 ‘의성진쌀(10kg)’만으로 빚은 술을 출품할 예정으로 예선은 9월 2일 11시부터 양곡리 사회적경제클러스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전문가 5명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총 80명이 본선으로 진출하게 된다. 9월 9일 13시부터 가을하늘 아래 민요소리를 시작으로 본선 경연대회가 열린다. 본선은 한국식품연구원 전문가 및 우리술교육훈련기관장 등 전통

주 전문가 10명이 심사위원으로 나서서 외관·향·맛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대상(농림축산부장관상)을 필두로 금·은·동(의성군수상) 등 총 15명의 수상자들이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을 예정이다.

당일 부대행사로 80명의 참가자들이 직접 빚은 출품주가 방문객들을 맞이하여 설명 시음회를 진행하며 전시관에는 ‘의성의 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수상자들이 의성군의 쌀과 특산물인 사과·마늘·자두·산수유·복숭아로 빚은 5종류의 한정주를 시음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체험부스에서는 술을 직접 빚어가서 다가오는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신도주 체험’이 있다.

본 대회는 ‘사회적경제 상생 한마당’과 동시 개최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높일 것이며 사회적경제 플라마켓 15개 부스가 출점하여 전통주와 어울리는 페어링 안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유일하게 대회에 출전하는 마을기업 (주)산창은 지역의 쌀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는 술 빚는 마을로서 대회의 의미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양주 경연대회는 전통주 문화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해석을 통한 식문화 발전 도모를 위해 개최해온 행사”라며 “전국 최고 권위의 우리술 경연대회를 의성에서 연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의성진쌀의 소비를 확산하고 방문객들을 불러오는 지역의 산업으로 연계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책임질 음악 축제 팡팡!

오천그린광장서 26일 여름 민트 콘서트, 27일 재즈페스티벌 개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푸른 정원 아래 펼쳐내는 문화공연이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8월 마지막 주말을 장식할 장르 불문, 믿고 듣는 뮤직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26일 오후 6시,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여름 민트 콘서트’가 열린다. ‘밤하늘의 별을’이라는 국민 히트곡을 보유한 경서부터 케이시, 재주소년, 박기영 등 감성 보컬들이 출연해 청량기 가득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27일, 오천그린광장은 화려한 재즈 선율로 둘러싸인다. 이날 열리는 ‘재즈페스티벌’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진다. 국내외에서 실력파로 인

정받는 박기훈 퀸텟(Quintet)을 비롯해 JSFA, 마리아킴 콰르텟(Quartet)이 무대에 올라 긴 러닝 타임을 지루할 틈 없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여름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푸른 잔디 위에 자유롭게 앉아 대중가요부터 재즈까지 다양한 공연을 즐기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9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정원, 가을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라포엠 콘서트 ▲이승환 콘서트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불꽃쇼 등 가을 정취를 자아내는 고품격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2023 전국 전통주 경연대회
제14회 전국 가양주 酒人선발대회

전통주 무료 시음회 (09:20-11:00)
■ 가양주 경연주 무료 시음행사 (80종)
■ 의성 특산물 전통주 무료 시음회(15종)
■ 신도주 안물기 체험 / 의성 전통주 전시
의성사회적경제상생 한마당
■ 의성군 사회적경제 마켓

2023. 9. 9 토요일
오후 13:00 - 17:00
장소: 의성군 로컬푸드직매장
주최: 의성군
주관: 가양주주인선발대회 위원회
사)도농문화콘텐츠연구원, 우리술교육훈련기관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GM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